



청년 민연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시민과 함께한 부산민연련 20년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청년** 민언론,  
시민의  
언론을 열다

시민과 함께한 부산민언론 20년 활동백서



참여론실천시민모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Busan Citizens Coalition Democratic Media

# 목차

부산민언련 20년 활동백서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발간사

- 06 부산민언련 20년 역사를 백서로 묶으며 | 윤영태
- 08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그날은 언제 오는가 | 장길만
- 10 부산민언련 역경 담긴 백서 발간에 부쳐 | 이진로
- 12 소박한 역사의 기록 재미있게 읽혔으면 | 정순영

## 축사

- 14 출범의 초심을 새롭게 생각할 때 | 강상현
- 16 언론노동자의 믿음직한 동지 부산민언련 | 강성남
- 18 시민 언론을 여는 영광의 길 | 김길구
- 20 민주언론을 위해 정진하는 부산민언련 되길 | 박홍원
- 22 부산민언련의 앞날에 위대한 전진이 있기를 | 이완기

## 24 축하만평 손문상 화백

## 25 사진으로 보는 부산민언련 20년

## 36 1992~2014 부산민언련 연혁

## 부산민언련 창립20년 기념좌담

- 44 1부. 부산민언련 20년 정리와 평가
- 58 2부. 부산민언련에 바란다

## 20년 친구가 말하는 부산민언련

- 74 선운사의 추억 | 황미향
- 76 민언련은 내 인생의 나침반 | 안영민
- 78 내 세포가 기억하는 연대의 따듯함 | 문정임
- 80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부산민언련 | 심수환
- 83 언론에 눈 뜨게 한 3회 언론학교를 추억하며 | 안지숙
- 86 참 대견한 부산민언련 | 윤대원

- 89 부산민언련과 얽힌 흐뭇한 추억들 | 이승환  
91 자주언론방송분권을 향한 여정 | 이희길  
93 아쉽고 미안합니다 | 안병규  
95 '낙관적 믿음'은 우리의 힘 | 오혁진  
97 묶임과 엮임의 반복, 나와 부산민언련의 인연 | 이영우  
100 오늘 하루도 즐겁게 | 이상기  
102 내 딸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최종숙  
104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길 | 최용국  
106 부산민언련 20주년을 축하드리며 | 임상민  
108 '응답하라 1994'? 2024년을 미리 소환하면 안 될까? | 최용수  
111 엄마의 스무살을 축하합니다 | 박지선  
113 앞으로 스물 발자국, 온기와 끈기를 보태어 | 허소희  
115 민언련, 내가 영원히 빛나게 해줄게요! | 조보고파  
117 스무살 청년, 더 당당하게!! | 최수영

---

119 **고 김성문 대표님을 추모하며**

---

---

124 **창립선언문**

---

---

126 **역대임원**

---

---

127 **부산민언련 회원명단**

---

---

128 **2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해주신 분들**

---

---

131 **성명서 · 논평모음**

---

---

149 **회칙**

---

---

155 **축하광고**

---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발간사 축사

## 부산민언련 20년 역사를 백서로 묶으며

윤영태

부산민언련 대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창립 20돌을 맞이했습니다. 언론개혁을 외치며 첫 발을 내디딘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언론운동사의 한 부분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 낸 역사적 성과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 동안 주류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언론의 민주화, 그리고 여러 형태의 교육과 사업을 통해 대안적 미디어운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확대를 통해 부산시민의 주권 실현과 증진을 꾀하고자 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단체의 희망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은 후퇴했고, 시민들의 표현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또 꾸준히, 부족함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단체가 품어 왔던 뜻 그대로 지니고 앞

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20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  
고자 우리 단체 20년의 발자취를 정리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백서는 우리 단  
체가 창립 이후 보여준 여러 목소리와 활동들을 정리해 묶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마음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단체는 이제 더 큰 걸음을 걸어가하고자 합니다. 더욱 힘찬 걸  
음을 만들겠다는 우리 단체 회원님들의 다짐을 대신 전하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  
신 많은 부산시민과 단체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그날은 언제 오는가

## 장길만

부산민언련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대표



부산민언련과 인연을 맺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창립 전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한 단체의 회원, 운영위원, 부대표, 대표 또 다시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뭐든 한 번 시작하면 그만두지 못하는 게 성격 탓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을 함께 고민하는 부산민언련의 사람들이 저를 끌어 당겼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언론이 올곧게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민언련의 회원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부산민언련과 함께 한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고인이 되신 김성문 교수님입니다.

고 김성문 교수님은 어려운 시절 대표를 맡아 저희 단체를 잘 이끌어 주셨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회의는 집중해서 짧게 했고 뒤풀이는 흥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무감이 앞서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자리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 뒤 제가 대표를 맡고, 이제 대표가 되었으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뿐이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나날이라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자회견은 왜 그리도 많은지. 그나마 부족한 대표로서 무사히 역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국을 맡은 박정희 국장과 지금은 부대표가 된 복성정 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 대표를 맡아 잘 이끌어 주신 자상한 이진로 교수님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급격히 중심이 된 시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화 되는 시대에 언론은, 특히 지역언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시민단체인 부산민언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핫이슈 중의 하나인 동해남부선 옛 철길 상업개발 컨소시엄에 부산시 산하 부산관광공사와 KNN, 부산 MBC, 부산일보 등의 부산지역의 언론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상업 개발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부산시장 예비후보 6인의 공동공약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협약식 행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신문은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앞에 커다랗게 붙은 현판에는 '저희 신문의 주인은 독자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언론의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직접적인 예산 후원과 광고 지원, 신문사는 별도의 법안까지 만들어 지역신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민감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사의 이익을 따져 보도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이는 심각한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은 황령산 상업개발에 반대 기사를 줄기차게 벌여왔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라 방향을 잡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의 방송과 신문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런 언론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부산민언론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해 봅니다.

## 부산민언련 역경 담긴 백서 발간에 부쳐

### 이진로

부산민언련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대표



10년 전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어느새 다시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하듯이 우리 사회도 부산민언련도 크게 변했다. 정치적으로 당시의 참여정부는 시민단체를 사회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됐다. 언론의 정부 비판이 활발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통합기자실 설치를 내세웠고, 정부와 언론의 갈등도 커졌다.

이어 등장한 정부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밝혔고, 광우병 위험을 염려한 시민의 광범위한 저항을 경험했다.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 약화에 나섰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부담스런 존재로 보았다. 방송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내세웠고,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의 날치기 논란을 거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했다. 보수적 논조의 신문에게 허가된 종합편성채널은 대통령선거에서 상대적으로 50-60대 남성, 영남지역,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의 공익성과 자율성이 약화된 가운데 시민단체의 역할도 시민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등장한 현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가 해직된 기자와 피디의 복귀를 외면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역부족이다. 시민단체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정착과 정책의 반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산민언련 20주년 백서에는 창립 이래 걸어온 역정(歷程)이 기록되어 있다.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대표를 역임한 채백 부산대 교수, 신태섭 동의대 교수, 운영태 동의대 교수, 안병규 인제대 교수와 오랫동안 운영위원으로 자리를 함께한 이범수 동아대 교수 등이 부산민언련의 기틀을 다졌다. 시민계에서는 대표를 역임한 김재경, 장길만 선생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정숙희, 이진규, 최용국, 정수진 선생 등이 활기를 불어 넣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회원관리와 사업추진, 단체 행정을 꼼꼼히 챙긴 정순영, 박정희, 복성경, 권용협 활동가의 헌신적 봉사도 빠뜨릴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들은 회비를 납부하며 마음으로 후원하고, 정기총회, 공개강좌, 회원의 날 등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 언론인 회원 여러분이다.

백서에는 향후 부산민언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담고자 했다. 언론 시민단체인 만큼, 언론의 공익성, 자율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확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를 위한 미디어 교육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공동체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여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꿈과 용기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 소박한 역사의 기록 재미있게 읽혔으면

정순영

부산민언련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백서분과



부산민언련은 그 동안 백서를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10주년을 맞았을 때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백서라고 하는 것이 그 단체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평가와 지향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활동을 활발히 하고 20주년 즈음에 만들자는 것이 당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에는 회원들의 글을 모아 기념 문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주년 사업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백서 제작은 이미 정해진 일이 되었고 제가 백서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우리의 백서는 소박하게 그간의 역사를 담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고 여기에 덧붙여 재미있는,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는 백서를 제작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초대 대표를 맡으셨던 채백 교수께서 특히 백서 구성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연혁과 역사를 보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이 백서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사진으로 보는 20년사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니 그림고 고마운 얼굴들이 속속 눈에 들어왔고, '그땐 그랬지'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이 백서를 보시는 회원님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대중 행사보다는 언론 모니터가 주요 사업이어서 사진은 많이 없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참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원 얼굴들을 다 담고 싶었고 될수록 많은 사진을 담고 싶었지만 백서는 회원이 아닌 분들도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제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사진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몇몇 사업은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의 자랑인 소식지 변천사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마감에 쫓겨 축소되어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진 소식지를 살펴보면 정말 아가자기한 회원들의 소식과 미디어 동향과 비평이 담겨있습니다. 축쇄본처럼 만들면 좋겠다 싶었지만 20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무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없어진 회보가 많았던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20년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20년을 그려보자는 취지로 두 차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민언련 내부 인사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우리 단체를 지켜보신 분들을 모시고 1부 회고와 평가, 그리고 2부 현재와 제언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각각 2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애정 어린 평가와 아이디어를 내어 주셨는데 참석해주신 모든 패널들께 다시 한 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민언련의 20년 지기인 회원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주년 사업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회원 모든 분들께 원고를 청탁하는 것은 살짝 민폐인 것 같아 연대기별로 몇 분만 선정하여 원고를 줄랐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께서 원고를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짧은 제작기간 다 못 챙긴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서의 기초 구성부터 도움을 주신 채백 교수님, 특별히 축하 만평을 그려주신 문상 화백, 자료정리와 원고까지 담당했던 사무국, 가까이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백서가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 마감을 넘겨 원고를 드렸음에도 멋지게 편집해주신 빛누리 출판팀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출범의 초심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때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전 부산민언련 공동대표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간 부산민언련과 인연이 되어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거나 일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축사를 써서 올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부산민언련 출범시 몇 년 동안 공동대표를 했다는 것 외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산 지역을 떠난 이후 멀리서 부산민언련의 활동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박수를 보냈을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부산민언련이 출발하던 1994년은 정치적으로나 언론사적으로 또다른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민주화 열풍 속에서 지방 의회의 출범에 이은 자치단체장 선거가 눈앞에 있던 시기였고, 지역신문의 창·복간 러시에 이어 지역민방의 출범과 다채널 케이블TV방송의 개국이 임박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문, 방송사 등 언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가지 언론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나타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부산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지방화 시기에 크게 늘어난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지역 언론에 거는 기대와 함께 지역 언론의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권력을 감시·비판해야 하는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비판할 필요

성도 커졌습니다. 흔히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을 독자이자 시청자인 시민들이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제5부'로서의 시민언론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부산에서도 당시 시민들의 언론운동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시민언론운동의 선봉에 섰던 일부 시민들과 학계 교수님들, 그리고 언론사 노조 활동가들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활동의 최전선에 있던 사무국장님과 간사가 결혼까지하면서 한 가정이 협의회의 버팀목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식 사무실을 열기 전에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언론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언론학교에 거의 무보수로 와서 열강을 해주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시민들이 모이고 참여하는 부산민언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당시 '어깨동무'였던 채백 교수님께 모든 걸 떠넘기다시피하고 부산을 떠났던 미안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열성껏 민언련 일을 돕다가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신 동갑내기 김성문 교수님 생각도 납니다. 그 뒤로 부산민언련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엄청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지역 언론문화가 많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화 추세와 정부의 언론 및 방송 정책이 지역의 희생을 더욱 강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5부 시민언론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부산민언련 출범의 초심을 다시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탓으로 20주년을 축하하는 손길은 부산민언련의 건투를 비는 기도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 언론노동자의 믿음직한 동지 부산민언련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년이라는 긴 역사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엄혹했던 언론사가 떠오릅니다. 한국언론은 군부독재와 반민주적 정치세력에 의해 비정상적 과정을 거치며 자랑스런 자유언론투쟁과 부끄러운 부역의 역사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1974년 동아투위 선배들이 독재권력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이래 오늘까지 언론노동자가 가슴 속엔 자유언론을 향한 의지와 실천투쟁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모리배들이 저지른 부끄럽고 굴욕적인 모습도 같은 시공간에 존재해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치지향의 차이에 대한 과도한 몰입, 언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증가 등으로 언론운동이 민주주의 성숙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그 역할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언론시민운동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지 못했던 정당치 않은 언론권력의 속살을 드러내고 알려내 그들의 치부를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의제화 했습니다. 민주 시민단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힘으로부터 민주언론을 지키려는

언론노동자에게는 큰 힘이 되어준 믿음직한 동지였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있었고 특히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산언론이 지역성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든든한 후원자 역할하고 있어 언론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방송은 2012년 언론노동자 대투쟁에도 불구하고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관통하여 언론장악이 완성되었고 각종 부당한 특혜 속에 일부 종편의 저질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문은 무관심 속에 취약해진 산업적 기반과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영향력과 신뢰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유언론’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흔히 자유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합니다. 무너진 언론을 보면서 더욱 그 가치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무너진 언론, 무너진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무너질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젠 원상으로 돌아가 본래의 모습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노동자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강고한 연대가 ‘자유언론실천’을 앞당길 것입니다.

언론노조의 의미있는 연대활동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시민 언론을 여는 영광의 길



● 김길구

부산YMCA 사무총장 / 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1994년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란 사명감으로 이 땅의 척박함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귀회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오늘 축하의 마음에 앞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닌듯합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지난 20년 간 언론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디지털미디어의 등장과 일반화입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가 널리 보급되면서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점차 ‘투명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언론 역할을 하리라고 믿었던 인터넷과 SNS도 빛과 동시에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존 언론사의 경제적 조건의 악화입니다. 국내 경기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데다, 케이블방송의 약진과 디지털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사는 물론이고 기존 방송사의 수입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의 경우 2011년 1조 7,092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5,4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상파TV 방송국 광고 역시 2011년

2조 775억원에서 2013년 1조 8,273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셋째는 언론사들의 권력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으로써, 언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MBC와 SBS 역시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중간 광고'의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메이저 신문사는 종합편성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눈 밖에 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언론사는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지원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년 전 높이 올렸던 '언론자유'의 깃발은 바깥 한 구석에서 빛바랜 상태로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이를 반영하듯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197개국 가운데 64위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나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2006년 31위를 정점으로 계속 뒷걸음질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잃어버린 '언론자유국' 지위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외된 자와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으로서 역할하는 언론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악화에 더하여 갈수록 독자가 줄어들고, 배급망마저 여의찮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언론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부단히 민연련은 부산지역에서 밖으로는 권력과 시장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안으로는 언론권력의 남용을 막아 그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놓기 위한 의로운 싸움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 길이 지난 20년간의 발자취처럼 결코 평탄치 않은 외로운 가시밭길이라도 시민 언론을 여는 영광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거듭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발걸음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걸음에 더욱 많은 성취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언론을 위해 정진하는 부산민언련 되길



박흥원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창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 시절 극심한 탄압 하에서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서울에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민주언론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추동해온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민주언론을 통한 사회 민주화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떠안아 온지 벌써 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민언련은 시민 미디어 교육, 지역언론 모니터, 시민 미디어 참여, 언론개혁 및 언론정책 관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언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부산민언련이 보여준 그간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 혹은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 기여해야 할 공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처럼 중요한 민주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사

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특혜를 바탕으로 스스로 권력화하여 민주적 정치과정을 왜곡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언론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지위를 얻었지만 매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민주언론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탈권위주의 과정을 걷고 있던 우리 정치문화가 새로운 권위주의로 회귀하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점점 위축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곁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있어 언론과 사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기에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민언련에게는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험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민언련이 힘차게 열어가는 그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묵묵히 성원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민언련의 앞날에 위대한 전진이 있기를



이완기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과 함께 활동 백서가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민언련은 1994년 창립 선언문에서 언론이 ‘오락의 창’으로 있을 때 그것을 닦아 낼 것이고, 언론이 ‘맑고 바른 참언론’으로 있을 때 격려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 활동 백서는 부산민언련이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싸웠던 투쟁의 기록입니다.

부산은 국제사회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 도시이면서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던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백서는 그러한 부산지역의 언론들이 지난 20년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시민사회는 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차례의 대통령선거와 총선, 4차례의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언론의 보도 행태와 그에 대한 지적 및 비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수장학회 문제, 미디어법 날치기, DTV전송방식 변경운동 등 국가적 의제들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언론 역사의 살아 있는 자료입니다.

부산민언련은 언론 감시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언론학교를 열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언론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언론운

동의 대중화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학부모, 청소년, 어린이, 언론소외계층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시민운동의 모범적 전례가 될 것입니다.

1999년부터 4년 동안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을 모니터하고 이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배타적 지역감정’은 극소수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사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행위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었고 확고한 의지와 용기 없이는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벌여온 부산민언련의 의지와 용기는 아무리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퍼블릭엑세스 영상제, 지역방송 광역화 등 지역의 언론정책과 언론개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찾은 부산민언련의 노력은 향후 부산지역의 언론발전을 위해 유익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언론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 역사는 왜곡되고 역사의 왜곡은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오류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엄청난 해악으로 이어집니다. 언론운동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전 언론의 맹목과 난청을 깨겠다고 선언했던 부산민언련이 항상 언론을 지켜보는 ‘제5부’로 우뚝 서있기를 기대하며 앞날에 위대한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문상 화백

동아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에서 시사만화 그렸고, 현재는 프레시안 이미지팀장으로 '손문상의 그림세상'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 언론학교 강사로도 참여해주신 인연으로 축하만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사진으로 보는 부산민언련

1992-2014  
부산민언련 연혁

---

**부산민언련**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제를 나눠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년의 활동 사진 속에는 부산민언련 역사가 빼곡히 들어 있고, 무엇보다 그림고 고마운 얼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얼굴들이 오늘의 부산민언련을 있게 한 주인공이자,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온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너가 '그땐 그랬지'하며 부산민언련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는 지면이 되길 바랍니다.

## 언론 민주화 시급하다 - 준비부터 창립까지



### ‘언론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회 민주화도 어렵다!’

9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1984년 12월 서울에서 언론운동협의회가 재야언론운동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10여년이 흐르는 사이 부산지역에서도 언론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활동가들이 모여다. 우선 9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 강좌와 대선보도 모니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는 신문과 방송이 노골적인 편파 보도로 질타를 받던 시기다. 그래서 부산지역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모니터가 시작된 것이다.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모니터팀은 학교와 회사를 마치고 모여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해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이후 선거 시기마다 모니터 활동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20여년 동안 주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직의 정식 창립은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 준비위 당시의 명칭은 ‘부산경남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93년 창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열었던 1회 언론학교는 수강생이 8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당시는 사무실이 없어 시사 월간지『말』지 부산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신세를 졌고, 강좌는 종교단체의 교육실을 빌려 개최하였다.

94년 4월 2회 언론학교는 마지막 공개특강과 함께 창립대회를 겸해서 진행되었다.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으로 유명했던 손석희 씨의 특강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달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이날 특강 외에 정식 창립대회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빨리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창립 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였기에 사진을 남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 01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황미향 간사
- 02 94년 창립대회 자료집
- 03 1994년 4월 30일 2회 언론학교 및 창립대회에서 손석희 아나운서 특강
- 04 1994년 10월 3회 언론학교

## 회원들이 마련한 사무실



01



02



03



04



05



06



07

언론학교 1, 2기 수강생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두 번의 '하루호프'와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드디어 94년 12월에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말」부산경남지사와 함께 하는 사무실이었고 비록 지하였지만 강당을 갖춘 사무실이 마련된 것이다. '본회 교육관'에서 언론학교 등의 강좌를 이어갔고 평일 저녁에는 회원들의 신문, 방송 모니터 모임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저녁 분반 모임 이후의 훈훈했던 뒤풀이는 회원들을 더 끈끈하게 연결했던 시기다.

그리고 96년 2월 역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숙원(?)이었던 지상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지금까지 햇빛 드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 01 94년 12월 사무실 개소식
- 02 저녁 회원 모임 이후 한 장면
- 03 5회 언론학교 중 강상현 교수
- 04 95년 회원 송년의 밤
- 05 96년 2월 지상 사무실 마련 이전 개소식
- 06 96년 2월 2차 정기총회
- 07 4차 정기총회

## 모니터반, 국토기행반 등 회원 활동의 전성기



01



02



03



04



05

- 01 94년 동학100년 회원기행
- 02 5·18 광주항일동맹의 참배
- 03 회원들의 국토기행
- 04 하계 회원 수련회
- 05 회원들의 국토기행

90년대엔 어느 시민사회단체나 5월이 되면 광주로 순례를 떠났다. 부산민언련의 회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5월이 되면 망월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에서 다른 지역의 민언련 회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광주와 서울지역 민언련 회원들과 무등산을 오른 것도 이즈음이었는데 사진이 없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96년에는 회원들의 국토기행 모임이 만들어져 해남으로 고성으로 떠나기도 했다. 신문모니터반과 방송모니터반 외에 영화반, 국토기행반, 산행반 등 회원 중심의 소모임이 90년대 후반에 속속 만들어졌다.

## 회원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회원 활동



01



02



03

01 95년 10월 회원의 날

02 회원의 날

03 2001년 회원 연수

04 2012년 '불하마을' 봄소풍

05 2013년 회원 소풍

06 2008년 낙동강 기행



04



05



06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 뛴 적도 많았지만 '한 달에 한 번'을 목표로 '회원의 날'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회원의 날엔 그 시기에 필요한 특강을 마련하기도 하고 회원 스스로가 준비한 개성있는 이야기 거리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회원들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회원 행사의 전통은 20년의 세월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소풍'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언론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01



02



03



04

선거제도 감시부터 활동을 시작한 부산민연련은 이후로도 선거시기마다 선거제도를 모니터하고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대학언론단체, 지역 언론노조,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시민 캠페인과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요즘은 선거 시기에 접어들어 선거제도를 집중 모니터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모니터 활동이 일상화되었지만 96년 당시에는 별도의 발대식을 가지고 후원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자체로도 주목받는 일이었다.

- 01 1996년 4월 제14대 총선 선거제도 감시회의 발대식
- 02 1996년 8월 언론 제자리 찾기 시민대회
- 03 1996년 8월 언론 제자리 찾기 시민대회
- 04 1996년 8월 언론 제자리 찾기 시민대회

## 회원 중심 모니터 모임과 지역감정 조장모니터·안티조선 운동



01



02



03



04



05



06

9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사무국과 함께 회원들로 구성된 모니터 모임이 큰 역할을 했다. 모니터 모임 회원들은 선거 외에도 지역현안이나 언론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 모니터 활동을 해왔는데, 99년부터 2002년 동안에는 광주, 경남 등 영호남권 민연련 연대하여 지역감정 조장 언론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결과를 전시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민연련은 조종동 보수언론의 폐해를 알리는데도 집중했는데, 특히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안티조선' 운동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펼쳤다. 2001년엔 언론바로 보기 강좌로 <왜 안티조선인가> 특강을 4회 개최하기도 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안티조선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며 시민 관심을 모았다.

- 01 모니터 모임
- 02 모니터 모임
- 03 2001년 신문개혁을 위한 언론 바로 보기 강좌
- 04 조선일보 반대대행
- 05 조선일보 친일행각 전시회
- 06 2008년 시민선전전

교육으로 다양한 시민을 만나다!



- 01 99년 5월 2회 어린이 기자 학교
- 02 99년 5월 2회 어린이 기자 학교
- 03 99년 5월 2회 어린이 기자 학교
- 04 2000년 어린이 TV 시청교육
- 05 2000년 청소년 비디오 제작과정
- 06 2000년 주부 비디오 제작과정
- 07 2000년 교사 비디오 제작과정
- 08 2000년 신문모니터 실습강좌
- 09 2001년 어린이 미디어교육 교재 발간

1998년 8월 '제회 어린이 기자학교'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6회의 어린이 기자학교가 열렸다. 지금까지 언론 모니터와, 언론학교, 회원 모임이 주요 활동 영역이었다면 이때부터 교육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다양해진다. <어린이 TV 시청교육> <청소년 비디오 제작과정> <주부 비디오 제작과정> <교사 비디오 제작과정> <신문모니터 실습강좌>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대학언론인을 위한 미디어교육> <현직 교사를 위한 미디어교실 및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등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많은 교육사업이 펼쳐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영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교육 사업이 활발히 펼쳐진 시기였다.

이러한 대중강좌를 통해 부산민언련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저변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2001년 발간한 어린이 미디어 교재 「미디어 바로보기」는 실제 미디어교육을 담당했던 회원들이 자신들의 교육경험과 정기모임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미디어교육 교재 자체가 많지 않던 당시에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기도 했다.

## 소외계층을 넘어 마을로 간 미디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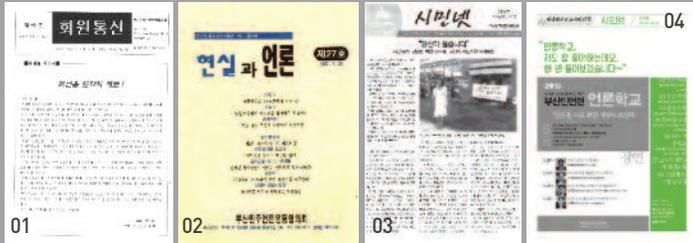
- 01 푸른샘공부방 미디어교육
- 02 지역공동체 '숨바꼭질'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03 부곡동 '금정야학' 미디어교육
- 04 '반송 희망세상' 어린이 기자교육
- 05 푸른샘 공부방 미디어교육
- 06 2013년 모라동 '아모사' 기자학교
- 07 2013년 푸른바다생협 기자학교

2000년 중반부터 미디어교육은 보다 활성화된다. 이전의 미디어교육이 개설하고 모집하는 방식의 '찾아오게 하는' 미디어교육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교육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푸른샘 공부방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었는데, 공부방 및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구성했다. 이 교육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2005년 개관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파트너가 되어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 미디어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가들과의 교류도 추진하게 되었고, 몇 해 이어지진 못했으나 '부산미디어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부산미디어교육 네트워크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교육 경험을 나누고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모아 나갔다.

2012년부터는 마을 신문을 비롯한 마을 미디어교육으로 미디어교육의 중심이 옮겨갔다. 이때부터는 우리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이 아니라, 마을이 주최하고 우리단체는 교육을 함께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교육의 영역을 넓혀갔다.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들이 마을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였기에 시민들의 접근이 그나마 쉬운 마을 신문 제작 움직임은 널리 퍼져나갔다. 반송 희망세상의 '반송 사람들' 기자 재교육을 비롯한 각 공동체의 미디어교육은 부산민언련이 지역민과 직접 만나게 계기가 되었고, 지역언론의 실태와 함께 대안 언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 소식지로 회원과 회원을 잇다

- 01 회원통신 제19호
- 02 회원통신 제27호
- 03 시민넷69호
- 04 시민넷38호



부산민언련은 소식지를 통해 회원과 소통해왔다. 회원 소식지를 보면 부산민언련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회원동정란, 신입회원 소개, 분반모임 활동내용, 모니터 결과 보고서, 성명서, 미디어 칼럼 등으로 알차게 제작되었다. 축색본 형태로 남기고도 싶었으나 지면이 한정되어 실을 수 없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아가자기하고 지금 봐도 유용한 당시의 언론 이슈에 대한 칼럼이나 기고글, 성명서 등은 자료적 가치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창립과 함께 매월 1회 〈회원통신〉이라는 이름으로 4면의 소식지 형태로 발간하다가, 지면을 조금씩 면을 늘려갔고 1996년 4월 20일자 제21호부터는 「현실과 언론」이라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실과 언론」은 2001년 6월 33호까지 남아있는데 정확히 몇호까지 제작되었는지는 확인이 힘들었다. 이 시기 사무국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소식지 명맥이 잠깐 끊어졌으나 2005년 12월 회원소식지 제1호로 복간되었다. 다음해 1월부터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인 〈시민넷〉을 제호로 지금까지 제작되고 있는데, 2013년 3월 지면 개편을 단행해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만형을 키운 안주인 역할 토크이 해



- 01 2007년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에서 시민제작자와 관객의 만남
- 02 2007년 부산지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토론회
- 03 2013년 5월 3일 '노동자의 날' 특집으로 진행된 〈라디오시민세상〉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의 방송 참여 권리가 보장되고 이에 따른 영상 제작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비디오 제작과정이 그것인데, 서울 민언련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민언련 조직이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퍼블릭액세스'라는 단어는 지금도 낯설지만 2000년 당시는 더욱 생소했다. 2000년 방송법 개정 이후 실제 시민들의 방송참여가 보장되기 시작하자 부산민언련은 시민들의 방송 제작을 위한 교육사업과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를 열어 시민참여를 도왔고, 이후에는 부산지역 액세스 채널을 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부산민언련의 노력과 지역 방송사의 협조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산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되었다. 2005년 10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았던 <라디오 시민세상>은 이제 10년차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고, 방송에 직접 참여해본 시민들은 <라디오 시민세상>을 통해 시청자주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도 했다.

## 언론 감시에서 언론 활성화 위한 정책 제안으로



부산민언련이 창립할 즈음, 지역민영방송이 신설되었다. 부산민언련은 94년 창립 하자마자 부산경남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부산지부와 함께 '바람직한 지역민영방송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이 원하는 지역민방의 상을 토론했다. 지역민방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은 이후 지역민방 광역화 관련 토론, 지역광역민방 KNN(당시 PSB) 1년 평가 등으로 이어졌다. 또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TF 운영, 지역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 방송 정책을 논의하고, 또 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진행했는데, 1998년 지역일간지 <부산매일신문> 폐간 과정에서 '부산매일신문 정상화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조종동의 시장 독점에 반대하며, 신문경공 사태조사를 진행하

- 01 2007년 케이블방송 토론회
- 02 2007년 KNN 1년 평가토론회
- 03 2011년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04 방송광고 연계 판매금지 기자회견
- 05 2004년 바람직한 지역민방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

기도 했다. 지역민언련들과 연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10년부터는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고, 그 성과로 2011년 '부산시지역신문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지역 케이블 방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 정수장학회 사회환원과 부산일보 독립 투쟁



부산일보 사주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고 김지태씨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의 자산을 강탈해 설립됐다. 박정희 사후에는 박정희 일가가 관리하다 95년부터 박근혜씨가 이사장직을 맡아 운영했다. 그런데 95년 박근혜씨가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언론인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루면서, 부산일보의 편향보도가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부산민언련은 모니터를 통해 편향보도를 지적했다.

한편 2005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잇따라 부일장학회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탈됐음을 확정함에 따라,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환원 요구가 높아졌고 부산민언련은 지역대책위의 간사단체를 맡으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는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2012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대선을 맞아 편집권 독립 문제를 기사화한 부산일보가 발행되지 못하고,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이 해임되는 사태를 겪으며,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는 '부산일보편집권독립과 정수재단반환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결성하고 촛불문화제, 강연, 1인시위, 토론회 등 활동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문제는 다시 과제로 남게됐다.

- 01 2007년 정수장학회 연속토론회
- 02 2012년 촛불문화제
- 03 부산일보 앞 1인시위
- 04 언론문화제
- 05 언론문화제

## ‘언론 공공성 지키기’ 운동 중심에 서다



01



02



03



04



05



06



07

MB정부 들어 언론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피해는 지역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당시 KBS 이사진 교체에 관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KBS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동의대로부터 해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 KBS 지키기와 신태섭 교수 부당 해임 철회 투쟁을 펼쳤다. 이 움직임은 결국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로 발전했고, 언론약법 저지 투쟁과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거론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 미디어법 개악과 종편 반대 투쟁, MBC 정상화와 김재철 퇴진을 위한 투쟁, 공정성 회복 없는 KBS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 MBC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에 이르기까지 언론 문제와 관련한 투쟁의 중심에서 지역민들의 성난 민심을 대변하기도 했다.

- 01 2008년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일환으로 진행된 신태섭 교수(당시 KBS 이사) 해임에 대한 지역시 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 02 2009년 언론인 해임과 탄압, 언론 장악 규탄 기자회견
- 03 언론장악저지 촛불 문화제
- 04 2009년 9월 〈힘내라 지역언론, 지켜줄게 언론자유〉 언론문화제
- 05 2010년 조중동반대 캠페인
- 06 언론장악저지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대표 3인방
- 07 2010년 9월 KBS 수신료 인상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

- 1992 ○ 10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선거와 언론' 강좌 개최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 활동
- 1993 ○ 1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지역언론' 자료집 발간  
10월 '제1회 언론학교' 개최
- 1994 ○ 4월 30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정식 창립(공동대표 : 강상현, 채 백)  
4월 제2회 언론학교 개최  
6월 '바람직한 지역 민영방송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9월 '대학신문 편집학교' 개최  
10월 제3회 언론학교 개최
- 1995 ○ 3월 제1회 모니터 교실 개최  
4월 제4회 언론학교 개최  
6월 지자체 선거 '선거보도감시회의' 활동  
10월 제5회 언론학교 개최
- 1996 ○ 4월 제14대 총선 '선거보도 감시회의' 활동  
4월 총선 후보자 언론관련 설문조사  
5월 제6회 언론학교 개최  
6월 국토기행  
8월 22일 언론 제자리 찾기 시민대회 개최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  
11월 제7회 언론학교 개최
- 1997 ○ 2월 제3차 정기총회 개최(대표 : 채 백)  
5월 제8회 언론학교 개최  
회원 광주순례  
북한 동포돕기 모금운동  
6월 국토기행  
8월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中 테마심포지움(Zoom in Mass Media)후원  
국토기행  
11월 제9회 언론학교 개최  
11월 '대선보도와 지역언론의 공정성' 심포지움 주관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부산지역 '선거보도감시회의' 운영

- 1998 ○
  - 5월 제10회 언론학교 개최
  - 6.4 지자제 선거 '선거보도감시회의' 운영
  - 6월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단체명 변경
  - 8월 제1회 어린이 기자학교 개최
  - 9월 '개혁을 위해 돌아본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과거들'  
부산전사회 주관(부산역 광장)
  - 10월 언론개혁을 위한 부산 시민사회단체 워크샵 개최
  - 11월 부산매일신문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공동대책위 구성  
언론개혁부산시민연대 사무단체 선정  
언론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 1999 ○
  - 2월 '지역감정과 언론' 강준만 교수 강연 및 토론회 주최
  - 5월 제2회 어린이 기자학교 개최
  - 6월 제11회 언론학교 개최
  - 제5차 정기총회(대표 : 김재경)
  - 9월 신문방송모니터 교실 개최(영호남지역감정조장 언론모니터운동 일환)
  - 10월 제3회 어린이 기자학교 개최
  
- 2000 ○ 연중 영호남 지역감정조장 언론모니터 운동
  - 4월 2000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활동  
(언론모니터분과 전담, 50여회 모니터보고서 생산)
  - 5월 회원 광주 순례
  - 7월 제4회 어린이 기자학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1회 비디오저널리스트 강좌 및  
시민뉴스제작반 사업
  - 9월 홈페이지 공식 개통(www.siminnet.or.kr)
  - 10월 제1회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제2회 현직 교사를 위한 미디어교실 및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 12월 제3회 신문·방송 모니터교실
  
- 2001 ○ 연중 1년간 영호남 지역감정조장 언론모니터 운동
  - 1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시민저널리스트 무료 강좌
  - 3월 어린이 미디어교육교재 '미디어 바로보기' 출간
  - 4월 언론바로보기 강좌 : 왜 안티조선인가

- 5월 제1회 영화강좌
- 6월 신문개혁국민행동 부산본부 사무국으로 선정
- 8월 제5회 어린이 기자학교  
제3회 시민저널리스트 강좌
- 9월 부산지역 방송모니터 요원 연수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안티조선 1인시위 및 서명운동
- 10월 제1회 퍼블릭액세스 영상제 개최 및 상영회  
제12회 언론학교
- 11월 제4회 신문·방송 모니터교실
- 12월 제1회 우수 방송모니터 공모전 및 시상식  
제6회 어린이 기자학교
  
- 2002 ○ 연중 1년간 영호남지역감정조장 언론모니터활동 및 전시회
  - 5월-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대 동시지방 선거 보도 감시회의 운영  
(신문모니터 보고서 총 67회, 방송모니터 보고서 총 38회 발간)
  - 11월 제2회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개최
  - 12월 지역감정 조장 언론모니터 사례 전시회
  
- 2003 ○
  - 6월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단체명 변경(대표 : 신태섭)
  - 7월 대학언론학교 개최  
공영방송 공영성 말살 한나라당 규탄집회 참가
  - 8월 '지역민방 광역화의 가능성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9월 제13회 언론학교 개최
  - 9월-11월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 운영
  - 10월 지역방송 지역성 구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공영방송 지키기 부산시민연대' 준비모임 및 성명서 발표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을 위한 부산 소비자운동' 준비모임 및 성명서 발표
  - 12월 DTV 전송방식 변경 촉구 캠페인  
'정치개혁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부산민언련 송년의 밤 개최

2004 ○

- 2월 미디어교육 현황 공유 및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3월 총선미디어본부 발대식 및 '유권자 의제 및 TV토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4월 17대 총선유권자운동연대 미디어본부 활동 및 총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발표  
(3월 1일~4월 15일간 주간 및 일일보고서 발표)
- 5월 17대 총선 부산지역 언론보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부산 시청자주권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부산보궐선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기자회견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기대한다"
- 6월 제14회 언론학교 개최  
학부모미디어교육 개최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개 워크숍
- 7월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조직 및 사무국 활동  
'부산지역 미디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9월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활동
- 10월 '정수장학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주관  
제3회 퍼블릭 액세스 시민영상제 개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방송 토론회' 개최
- 11월 제2차 학부모 미디어교육 개최  
제15회 언론학교 개최  
제1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영상제작교육 주관  
'퍼블릭 액세스와 부산지역 시민언론운동' 토론회
- 12월 부산민언련 10주년 기념 회원문집 '혼자 꾸는 꿈, 여럿이 꾸는 희망' 발간  
(회원 48명 필진으로 참여)  
최민희 총장 초청 특강 및 창립 10주년 기념식(2004.12.8)

2005 ○

- 5월 방송모니터교실 개최
- 6월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개최
- 7월 청소년 미디어교육 '미디어와 나'
- 10월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제 1회 글쓰기 강좌  
토요일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진행
- 5월~11월 지역방송 기획모니터링
- 6월~8월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모니터
- 9월 토론회- 지역방송 광역화의 현재와 미래
- 10월 퍼블릭액세스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제안 및 실현 토론회

		-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중심으로 본 부산지역방송
	11월	퍼블릭액세스 순회영상제
	12월	부산민언련 후원을 위한 송년 일일주점 회원소식지 '시민넷'으로 복간
	<b>연중</b>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 활동
2006	○	
	2월	단체명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변경
	4월	간담회-5·31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4월~11월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5월	5·31 지방선거 선거보도 모니터단 발족 활동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활동가 워크숍
	8월	김성문 대표 유고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대표 선출(이진로, 장길만)
	9월	퍼블릭액세스 운동 활성화를 위한 영상제작 교육
	10월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글쓰기 강좌
	10월	퍼블릭액세스 확산을 위한 시민영상제
2007	○	
	9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공모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5월	지역공동체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푸른샘 공부방, 진구 숨바꼭질
	6월	시민기자양성을 위한 글쓰기 강좌
	10월~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보도 감시단 활동
	10월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11월	지역 케이블 방송 문제점 개선위한 토론회 개최 KNN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	
	3월	우리들의 라디오 볼륨을 높여라
	4월	18대 총선 보도 모니터단 활동
	6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
	5월	제 16회 언론학교 - 시민미디어강좌
	8월	자녀가 함께 떠나는 4일간의 미디어 여행
	9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미디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0월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글쓰기 강좌
	11월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개최
	<b>연중</b>	간담회 -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결성 및 활동

2009 ○	3월	지역주민의 보물상자 - 지역방송 바로보기 모니터교실	
	5월	제 17회 언론학교 - '언론을 바로보면 세상이 보인다'	
	6월	지역주민의 보물상자 - 지역방송 바로보기 모니터교실	
	10월	세상과 소통하는 힘- 블로그 글쓰기강좌	
	12월	재정마련 위한 하루호프 및 송년회	
	<b>연중</b>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실무 단체 맡아 활동 ▷회의 16회, 기자회견 9회, 공동성명 11회, ▷언론악법 촛불 12회, 집회/시위/1인시위/캠페인/서명전 27회 ▷언론문화제·언론굿 2회, 토론회·강연회 2회	
	2010 ○	3월	6.2 지방선거 보도 감시를 위한 모니터교실
		3월~6월	'6.2 지방선거보도 부산모니터단' 활동
		6월	6.2지방선거모니터단 '지방선거 평가토론회'
		7월~10월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활동 - 지역 국회의원 질의서 / 시민캠페인
9월		언론 특강 - KBS 수신료 인상의 비밀	
10월		제 18회 언론학교 - '다시 언론자유를 생각한다'	
12월		언론 특강 - "나는 왜 소셜미디어에 열광하는가"	
9월		예비사회적기업 '부산민연련사업단 미딩토리' 창업	
<b>연중</b>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활동 ▷부산MBC 노동조합 파업현장 지지 방문(4월 20일) ▷지방선거 지역미디어의제 토론회 (5월) ▷ 6.2지방선거 지역언론공공성의제에 대한 공개질의 ▷ KBS 새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파업지지 기자회견 (7월 7일/12일) ▷부산언론문화제 (10월)	
2011 ○		4월	제 19회 언론학교
	5월	모니터 교육	
	7월	지역 이슈 대응 모니터 - 한진중공업 파업 및 희망버스 보도 모니터 (3회)	
	10월	보궐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 발표	
	3월~9월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및 조중동 종편 및 특혜 반대 활동	
	6월~9월	미디어법 제정 및 종편 직접광고판매 저지 활동(언론공공성연대 연대활동)	
	1월 ~5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운동	
	11월	언론특강 - '미디어법과 조중동 종편 그리고 지역의 시청자' 부산민연련 재정마련을 위한 하루호프	
	12월	언론특강 - '11월 30일 부산일보 왜 발행되지 못했나'	

- 2012 ○ 2월 ~5월 2012년 총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발족 및 모니터 활동 (10회 모니터보고서 발표)
- 2월 부산민언련과 AOV이 함께하는 청소년 기자 교실
- 6월 부산민언련 모니터 교실 - '선거보도 시민이 바꾸자'
- 7월 ~9월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신문활용교육 지원'
- 9월 제 20회 언론학교 - '언론 핫이슈를 만난다'
- 10월 ~12월 2012년 대선보도 모니터단 활동 (9회 모니터보고서 발표)
- 4월, 12월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시민연대 활동
- ▷ 총선보도 평가토론회, 언론사 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 등
- 연중** 정수재단반환및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활동
- ▷ 정수재단반환부산시민연대 발족 및 토론회(1월)
- ▷ 총선후보 대상 정수재단 환원과 부산일보 문제 해결위한 질의서(3월)
- ▷ 장물 정수재단 반환-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위한 각종 촛불문화제와 1인시위(연중)
- 연중**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 사하품앗이, 반송 희망세상, 거제 여성회 '마을신문 만들기', 금정구 중합사회복지관 '노인 블로그 기자단 교육' 등
- 2013 ○ 2월 정기총회
- 4월 부산MBC 낙하산 임명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 대응 회의 주최
- 5월 제 21회 언론학교 (총 4강)
- 7월 모니터 특강 (총 2강)
- 국정원 사태 공정보도 촉구 시청자대회
- 8월 국정원 선거개입 공중보도 촉구 시민행동
- (KBS 수신료 인상의 논의의 전제와 원칙에 관한 시민간담회) 실무 담당
- 6월 ~9월 국제신문과 함께하는 어린이대상 NIE교육 기획 및 강사 참여
- 10월 시민미디어 특강 (총 2강)
- 연중**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미디어교육
- (부산YMCA, 반송사람들 등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6회 컨설팅 및 강사 참여)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부산민언련 창립20년 기념 좌담

---

부산민언련 20년 역사를 돌아보며, 창립과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2회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초대 사무국장, 전 대표 등이 참여하여 '20년 정리와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2부에서는 현 부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부산민언련의 이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좌담 내용을 나눠 실었습니다.

청년 민언련,  
20년을 말한다

정순영  
부산민언련 전 사무국장



신태섭  
부산민언련 전 대표



이진규  
부산민언련 전 사무국장



박정희  
부산민언련 현 사무국장

윤영태  
부산민언련 현 대표



## 1부. 부산민언련 20년 정리와 평가

# 언론개혁 열의 모아 부산민언련 깃발 들다

일시 : 2014년 3월 31일(월) 오후3시

장소 : 부산민언련 교육관

사회 : 윤영태 부산민언련 대표

좌담 : 김재경 전 대표, 신태섭 전 대표, 이진규 전

사무국장, 이호진 부산일보 기자, 최동섭

부산YMCA 사무국장, 박정희 현 사무국장

정리 : 정순영 전 사무국장



최동섭  
부산YMCA 사무국장



김재경  
부산민언련 전 대표



이호진  
부산일보 기자

윤영태

오늘은 부산민언련 창립과 20년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초대 사무국장으로 창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진규 전 사무국장께서 그 당시를 회고해 주신다면?



“92년 ‘선거와 언론’ 초청강연에서 부산민언련 설립이 제안 되었습니다. 94년 창립 이후 처음 개최한 언론학교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고, 지역의 언론인, 학자들이 강사로 끼어 참여했습니다.”

네, 부산민언련 창립은 1994년이지만 2년 전인 199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던 게 시작이었죠.

이진규

당시 KBS 해직 언론인이었던 김철수 노조위원장 초청강연이 있었는데 시민이 100여 명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뒤돌이 자리에는 동아투위 정동의 선생님, 배다지 선생님이 참석을 했는데 정동의 선생님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죠. 부산에도 시민 언론 감시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즉석에서 선거보도 감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대선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집도 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94년 정식 창립을 했는데 문민정부 최대 이벤트였던 지역 민영방송과 관련해 바람직한 민영방송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기도 했고, 지역 민영방송사가 공정하게 선정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창립 당시 언론을 감시하는 공개강좌를 부산에서는 찾기 어려웠는데 시민에게 꾸준히 지지를 받았죠. 처음 1·2기 언론학교는 수강생들이 60~80명까지 모였으니까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웃음). 또 언론학계, 언론노조와 연대도 잘되어 그쪽에서 출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윤영태

부산민언련은 당시에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는 체제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요?

사실, 초대 대표를 누가 맡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채백 부산대 신방과 교수님, 강상현 당시 동아대 신방과 교수님(현재 연세대 신방과)이 마다않고 기꺼이 대표직을 맡아 주셨죠. 사실은 2년간 시민 언론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던, 실무를 맡았던 저와 초대 간사였던 황미향 간사 이렇게 둘이서 2년간 좀 귀찮게 해드린 측면도 있습니다(웃음).

이진규

무엇보다 그 당시만 해도 시민단체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일이었는데, 두 분만의 회동 직후 전격 수용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이후 지금까지도 학계에 계신 여러분이 대표 혹은 운영위원 등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 가지 특징으로 자랑할 만한 사항이 부산민언련은 매년 언론 감시 활동을 꾸준히 하는 한편으로 회원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서 1999년에는 일반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김재경 대표님이 맡아 맹렬한 활동을 보여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학계에서 초기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시민이 이끌어가는 시민단체로서 다른 단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영태

네, 역시 초대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부산민언련의 역사를 단 시간에 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보니 좌담이 대담처럼 흘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창립 시기에 대해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학교, 역사기행 등 그때 사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민언련 창립 당시 지역 분위기, 혹은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박정희

이진규

언론학교 일정 중에 KBS부산총국에서 하루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날은 100여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그날 밤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죠. 수강생들은 스튜디오 구경도 해보고 부조실도 들어가 보고 아주 흥미로워 했습니다. 이런 예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였던 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모니터도 잠깐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산민언련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장면은 창립 때입니다. 강상현 교수님이 초안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창립선언문은 지금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아주 명문이었습니다.

최동섭



“창립 초기 부산민언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가 높았습니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때면 커피를 사다주는 시민도 있었고, 각계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커지면서 시민 참여는 줄어든 거 같아 아쉽습니다.”

김재경

창립선언문은 제가 낭독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지식인층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목말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1기 언론학교 소식을 보면서 너무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1기에 수강을 못하고 2기 언론학교를 들었죠.

딸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캠페인 있으면 같이 유인물 나눠주곤 했는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그 당시엔 추운데 고생한다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서면로터리에서 당시 돈으로 몇 만 원씩 커피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공정방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열정이 거셌던 시기였습니다. 손석희 씨가 MBC 노조 간부를 하면서 푸른 수의를 입었던 그 시기였죠. 부산역에서 사진 전시회도 했는데, 당시 시민들의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진규

최근에 2기 언론학교 출신 강신호 회원님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 환경 정화에 애쓰는 아주 소박하신 분인데, 소주 한 잔 하면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약사, 한의사, 은행원, 호텔리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민이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품고 참여했죠.



“저는 언론노조와 연대의 장에서 인연이 시작됐는데, 부산일보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이나 방송사들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등 활동에서 부산민언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호진

언론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저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것은 2004년 총선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씨가 부산대책위, 당대표로 총선 맡았던 시기였는데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 문제가 드러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인 공방위나 공보위 조직들과 부산민언련이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없었다면, 방송사들의 투쟁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하다시피 챙겨준 게 부산민언련이었습니다.

창립 이후 각계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럼, 창립 기간을 지나 중반기 민언련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영태

김재경

제가 보기엔 외형적으로 부산민언련이 크면서 시민이 떠난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민언련이 정치색을 띄게 됐다는 생각을 갖는 회원들도 있었던 거 같고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20년을 지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뀐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린기자 교실, 현직 교사 대상 미디어교실도 했던 적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아꼈던 시기였죠. 호텔노조, 언론노조, 은행노조 등 다양한 계층 분들이 우리 활동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단절된 부분도 있습니다. 활동 영역이 줄어들어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원도 많고 다양했던 초창기를 지나 어떤 시점부터 참여 계층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면 언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짚어야 할 겁니다.

신태섭

박정희

제가 1996년 겨울 7기 언론학교 출신인데 당시에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성향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언론 일반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시민단체도 많이 없었던데다 언론운동 단체로는 유일했고, 참여하는 시민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이후에 점차 시민운동도 분화하고,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관심이 세분화되고, 민언련의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에 관심이 조금씩 없어진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는 부산민언련 뿐만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단체의 내실은 충분히 다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으로 지켜본 바로는 활동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재정 문제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초창기 10년은 정말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급여 얘기 나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초대 사무국장과 간사였던 이진규, 황미향씨가 없었

김재경

으면, 이 자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대표님들도 위험을 감수하셨지만 두 실무자가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애기 데리고 한 번 더 나오게 연락해주고 했던 두 사람인데, 급여도 거의 없었죠. 그 뒤에 맡았던 김남원 사무국장, 정은주 간사도 고생 많았구요. 막무가내로 희생 요구한 게 참 미안합니다.



“97년 즈음부터 시민단체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단체도 외형적 성장에 맞게 내실을 다져야 했어요. 그래도 당시 학계에선 시민이 살아있는 시민운동단체로 평가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희**

부산민연련만 겪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가 대부분 그랬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시민 참여에 의한 시민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부산민연련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일반 회원으로 시작해 실무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경우인데 초창기 모니터반, 영화반 같은 회원 소모임에 아주 재밌게 참여했었거든요. 당시에 학계에선 시민이 살아있는 시민운동 단체라고 호평을 해주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1997년 국민의 정부 들어 시민운동 전체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산민연련은 그 시기를 잘 지나왔다고 보시나요?

**윤영태**

**최동섭**

제가 핵심 회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시민운동 영역에서 부산민연련도 20년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시민주체성, 운동성 그런 부분이 개혁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혼신을 겪고, 일정 쇠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연련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초창기 생각과 가치를 계속 지켰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프로젝트성 사업들을 많이 하

면서 비판성이 약화되고 이런 게 시민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회원은 없고 상층부만 있는, 일반 회원은 할 일이 없어진 게 사실이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쉽고, 임원 발언은 쉽지만, 훈련된 회원들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치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회원훈련, 정체성에 대해 신경 썼는지 이런 부분은 평가해야 합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부산지역 단체들도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하고 진단하고 방향을 내어오는가에 따라서 회원들이 늘어나거나 줄었고, 초창기 가치지향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초창기에 비해서 정치색을 띄거나 대중성이 떨어지면서 외소화된 점 등이 평가로 나왔는데, 국민의 정부 이후 세분화되고 정치적으로서도 MB 이전 노무현 정부 전에 대비를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대비를 못했던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호진

상식이나 역사적 맥락 없이 불쑥 튀어나와 밀어붙이는 정부조치들에 민연련 같은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저항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반대쪽 시민들은 이를 정치적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즘 부산민연련은 풀뿌리 시민단체나 마을을 찾아가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던데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폭넓게 해왔던 사업과 견줄 만한 것이 마을 단위 미디어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앞으로 지향하고 활성화해야 할 사업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윤영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환경이 또 변화했습니다. 이 시기 부산민연련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언련은 시민사회의 변화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도 가장 열심히 싸운 단체였고, 언론노조 투쟁에도 가장 헌신적으로 연대했습니다. 일반시민이 대표를 맡으며 시민 주도를 먼저 얘기하기도 했어요. 시대에 맞춰 변화할 점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지난 활동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대표를 맡았는데, 그 전에는 회원 MT에 참여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초창기 10년을 정확히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태섭

전국의 민언련이 다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고 봅니다. 어려움을 겪은 배경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양적으로 커지고 민주화 부분에서 법적으로 실현하고 참여가 늘어나고 하면서 급격한 외형 성장을 겪었지만, 내실은 떨어지고 했던 시기였죠.

민언련은 그 시기 약삭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회원이 많이 줄었지만 민언련은 그냥 했던 일을 했어요. 한 때 인기 있다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활동가나 회원이 정치적이어서라기 보다는 소신대로 욕심 안내고 적은 부분이라도 전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가장 열심히 싸워준 단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언론노조도 자기 문제에선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민언련은 2012년 노조 대 파업에도 헌신적으로 결합했습니다. TV조선의 종북 5단체 딱지 붙이기에 항상 들어갔는데 그만큼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겠죠. 언론운동 진영이 상당히 갈려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연대하자 제안하고 힘들게 싸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언련이 다른 단체에 비해 시민들 시민주도성 더 많이 먼저 얘기했던 단체였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 시민이 대표를 맡기도 했다고 봅니다. 시민운동 순수성도 있고, 열심히 싸웠고, 소진해있는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정도의 차이, 방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10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물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이제는 시대가 변화해 시민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찾아 가야 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교육을 열면, 컨설팅부터 교육진행에 도움을 주는 형식이죠. 그 행사의 주체는 공동체고요. 당연히 1~2년은 민언련의 성과로는 남지 않겠죠. 그러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과의 괴리를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산민언련을 알리는 주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더 천착하여 지역 공동체 운동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전 퍼블릭액세스가 시민언론운동 영역에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퍼블릭액세스 운동을 비롯해 시민 중심의 미디어환경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시민단체나 마을 공동체를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의미있게 평가합니다.”

퍼블릭액세스 분야에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민언련은 10여년 전부터 공들여서 이 분야의 지평을 넓혔고 여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산 MBC 퍼블릭액세스 운영 모델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시민 주체의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섭**

김재경

사실 한 단체가 20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을 이렇게 유지하고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생각이 드는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 주세요.

윤영태

이호진

지방선거 모니터를 요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초창기부터 해왔던 언론 모니터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일반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니터의 엄밀성 즉, 비판을 받는 언론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언론 내부 상황도 많이 공유되고 있구요. 그러나 비판받는 기자들이 그런 평가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기자들이나 피디들이 받아들여서 반영시킬까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언론인들이 직접 일대일로 민언련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이 다루는 이슈는 정치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직 기자나 피디 등 현업 언론인 회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일반 시민 회원을 확대하는 그런 중층적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민언련과 함께 하는 시민연대 소속 단체라서 실무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처음의 가치를 잘 지키는 단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맥을 같이 하는데, 민언련이 전문 단체 이긴 하지만 좀더 의견을 넓히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언련은 선거보도 모니터에 집

최동섭

중해서 다른 선거 대응은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넓은 의미에서 유권자 운동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 시장 정당후보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되고 배제되어 있는데 언론에 이런 소외된 계층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데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을 미디어 방향은 잘 잡았는데, 기능적인 마을 미디어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민권력을 만드는데 부산민언련이 활동해야 한다는 거죠. 마을 미디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기능 교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태섭

현업 회원을 확보하고, 회원 주도성 높이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덧붙여 정책위원회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민언련도 한때 정책위원회 만들기도 했었는데, 한번도 활성화 된 적이 없습니다. 정책위원회 한다면 저는 일반 우리나라 언론 정책 전체에 대해 스크린 하고 플러스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각별히 애정을 갖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부분인 거죠. 서울에서도 지역언론 부분은 비공개로 논의합니다. 정책노선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지역 언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발제하고 어떤 상황이고 발전해야 하는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언론에서 목소리 큰소리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도 전국지들에 밀린 상황인데 이런데 대한 공론을 만들고 애깃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책위원회가 있고 연구자들이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 태어나 이제 막 성인이 되려는 부산민언련입니다. 지역에서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대도 컸고 그에 따라서 공과도 분명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각계에서 참석해주셔서 부산민언련의 성장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랑할 부분도 있고 아프게 새겨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까지도

#### 운영태

출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정을 갖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앞으로 청년기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더욱 발전하는 부산민언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민언련,  
20년을 말한다

이진로  
부산민언련 전 대표



이성열  
부산민언련 회원



권용협  
부산민언련 회원

복성경  
부산민언련 현 부대표



## 2부 부산민언련에 바란다

# 부산민언련의 새 걸음, 방향은 지키되 방법은 새롭게

일시 : 2014년 4월 3일(목) 오후2시

장소 : 부산민언련 교육관

사회 : 이진로 (부산민언련 전 대표,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좌담 : 권용협 회원(평상필름 대표), 복성경 부대표,  
이성열 회원(부산민주공원 홍보과장), 정수진  
부대표

녹취 : 박정희 사무국장



정수진  
부산민언련 현 부대표



박정희  
부산민언련 현 사무국장

이진로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 부산민언련이 창립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힘으로 만들어 온 20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민언련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부산민언련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부산민언련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2005년 부산지역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함께 하게 된 인연으로 부산민언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소외계층 미디어교육을 통해 더 깊어졌고요. 지금도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에서 퍼블릭액세스나 미디어교육을 고민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언련의 역할이 컸죠.

정수진

이성열

저는 지난 4~5년 정도 특별한 활동보다는 회원 행사를 중심으로 참여했는데, 느끼는 것이 '부산민언련은 참 작은 단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 행사로 소풍 같은 걸 가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더 많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5년에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긴다는 얘길 듣고 어디가면 이런 얘길 나눌 수 있는지 수소문한 끝에 부산민언련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엔 간사도 했고요. 간사까지 하고 보니 민언련 활동을 조금 알게 됐어요. 간사 해보니 쉽게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있어야 하고... 이런 특징이 회원들이 참여하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회원 사업이 참 힘든 단체라고 느꼈습니다.

권용협

**복성경**

지역에서 언론문제를 대응하는 단체는 부산민언련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문단으면 부산에는 언론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단체는 0이 되죠. 그런 사회적 책임이 라고나 할까요. 최소한, 지역에서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제언도 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산민언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민언련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작지만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 단체를 유지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힘으로 만들어 온 20년입니다.”

저는 일반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원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성열**

모임이 살아나려면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통해 충족되는 부분을 줘야 합니다. 회원들간의 교감 통해 삶의 자극도 찾을 수 있고요.

**정수진**

저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려면 회원 역량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교류 못지 않게 우리 사업을 펼칠 때 회원들의 역할을 찾아 주는 거죠. 우리 회원들 중에는 언론사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교육에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회

원들의 역량에 맞게 역할을 주고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덧붙여 가면서 속 얘기를 나누죠. 부산민언련 문화 중에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 입니까?

이진로

이성열

매번 총회에 와 보면 그 행사로 끝나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 한 달에 한번 이 달의 좋은 기사 이런 걸 뽑아서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뭐가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나누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 시민단체 간사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만들기 교실도 해봤는데, 역시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사회적 발언력을 높이는 단체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평상시 말하고 글쓰는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 회원사업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권용협

그리고 부산민언련의 활동력을 평가하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현안마다 대응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현 사무국으론 역부족이죠. 자원활동을 늘이고 위원회를 강화해서 현안사업과 상시 사업을 분담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성경

부산민언련은 94년부터 90년대 말까지 주로 모니터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죠. 언론 현실이 공정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모니터 모임으로 부산민언련이 활성화되고,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언론학교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언론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정책도 생기고 언론이 민주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언론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면서 부산민언련 활동도 오히려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응, 퍼블릭액세스 활동 등 시민을 만나나가는 교육과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언론 환경이 다시 안 좋아지고 단체도 외연을 더 넓혀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는 외연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하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고민이 필요해요. 함께 어울려야 사업도 하고 비전도 만드는 거니까요.”

앞서도 회원들의 역할을 찾아 주고 보다 대중적으로 회원들과 만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가 지금 부산 민언련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정수진

복성경

회원들과 만나나가는 데는 '언론'이 매개인 우리단체로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언론 상황에 따른 과제를 피하지 않고 화답하며 활동해왔지만 대중과 함께 풀어나가는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민언련 활동 사업들 평가하고, 언론상황에 대한 평가와 민언련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현재 민언련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현재 언론 상황에 따른 대응 등 민언련 활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로

정수진

지금의 상황에서 민언련이 해야할 활동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활동들이 내용적으로 깊이를 더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를 들어 모니터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에 와서 언론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언론감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활동 방식은 너무 고전적이라는 생각합니다. 참여 하는 방식과 표현을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로

정수진

예를 들어, 매체 비평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역 언론은 관심이 없죠. 만약 방송사가 안 하면 민언련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죠. 팟캐스트라든가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언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적극적인 모니터 방법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남지역에는 지역언론을 보도 소개하는 팟캐스트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다만 현재 상근 활동가 2명의 역량만으로 할 순 없을 겁니다. 자원봉사나 참여 회원을 늘려서 회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군요.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기등도 다양화해서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진로

그리고 언론 시장 변화에 따라 모니터 대상도 변화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문시장 많이 약해진 상황인 만큼 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언론감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활동 방식은 너무 고전적이라는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방식과 표현을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진로**

자, 그럼 여기서 2013년 부산민언련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 보면서 이야기를 구체화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해 부산민언련의 사업 가운데 마을로 들어가서 미디어교육이나 마을 소식지나 신문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키워야 할 게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지역 신문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담을 수 있는 매체, 대안매체나 '대체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나온 제안처럼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을 교육 강사로 참여시켜 본다거나... 언론학교라고 하면 좀 큰 주제라고 느껴져 잘 안가게 되지만 마을 이야기는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이슈를 나눌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이성열**

**권용협**

다른 단체들도 그렇고 명망가 중심의 대중강연이 많은데, 사랑방처럼 회원들과 모여서 언론현안이나 민언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회원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을 신문 교육 뿐 아니라, 마을 신문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거나 마을신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등도 해볼 수 있겠어요. 또 우리 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미디어 저널리즘, 미디어비평에 치우쳐 있는데, 미디어란 사회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언론의 영역을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데 우리 활동 영역도 미디어 소통을 넘어 사회적 소통, 개인의 소통, 직장 소통 등으로 확대해보면 일반 시민, 회원들도 관심 갖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 소견도 있습니다.

**이진로**



“시민 중심의 매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당연히 부산민언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죠.”

**권용협**

저는 시민 미디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미디어를 하려면 작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미디어 네트워크 쪽과 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미디어와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 미디어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조직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잘 실현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줄 곳이 필요합니다.

부산민언련이 시민 미디어의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진로**

**권용협**

네, 부산민언련이 다 맡아서 한다기 보다는 그런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부산민언련의 창립선언문을 읽어 보니까 “시민주체의...” 이란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민 중심의 매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당연히 부산민언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못지 않게 미래의 언론,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죠. 이런 청사진들이 정책단위를 통해 심도 깊게 고민되고, 실무진 외에 지도부,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논쟁된다면 단체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무언가에 대한 ‘반대운동’은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반대’ 실천은 어렵지만 ‘반대’ 입장을 정하는 건 쉬우니까요. 정책 역량이 떨어지니, 서울

**이진로**

의 큰 단체들만 바라 보게 되고 지역은 참여도 떨어지고 비주체적이 됩니다. 지역도 주체적으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수진**

저도 정책과 실무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고민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또한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회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형식이나 회원 들과 함께 하는 난상토론 등을 정례화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소풍과 정기총회 외에 민연련 회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고가는 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많이들 공감하시는군요.

**이진로**

**정수진**

아까 회원들과 함께 하는 사랑방 대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운영위원회 이후 뒤풀이를 오픈해서 회원들과 함께 하는 사랑방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기존 조직,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모니터모임 같은 틀로는 이미 고정관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들이 오긴 힘들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회원이 강사로 참여해서 회원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적게 오는 걸’ 두려워 해선 이런 행사를 진행 할 수 없어요. 회원이 저마다 나눌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성경**

**이진로**

마을미디어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덧붙여 주실 의견들이 있습니까?

마을미디어 관련해서 각 마을 신문 주체들을 만나보면 잘 기획하고 싶고 잘 만들고 싶어하는데 모임을 하려는 의지나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부산민언련이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진행해 보는 건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복성경

또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라디오시민세상>을 우리 단체가 간사 단체를 맡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마을신문 기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기존 시민미디어영역들이 크로스오버 하게 하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학언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어요.

정수진

<라디오 시민세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미디어를 실험하고 만나게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꾸준히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만큼 그런 역할을 맡아 주면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부산민언련이 '언론 해결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론문제는 부산민언련이 척척 해결한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힘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니터 교육'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좋은 언론 뽑아보기,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고요, 잘 되면 회원가입도 되고, 모니터 모임 회원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복성경

이진로

부산민언련이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지역 언론의 119'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 언론의 119, 부산민언련!' 뭔가 머리에 오래 남고 기억하기 쉽고, 좋잖아요?

(일동 웃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진짜 해야 할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는 부산민언련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부산민언련에 바란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꺼내 보죠.

이진로

정수진

우리 회원들은 부산민언련에 뭘 바랄까요? 2012년 회원 설문 때는 언론 감시를 잘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부산민언련의 정체성과 위상을 다시 정립할 시기라고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누구나 다 언론 비평을 하는 시기입니다. 굳이 민언련의 모니터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모니터를 보다 더 대중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평의 대중화를 위해서 모니터 교육이나 모니터 활용도 거기에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부산민언련은 꾸준히 언론모니터를 해왔는데 주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찾는 모니터로 역발상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성열

정수진

미디어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회원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민언련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언론감시'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언론 환경이 이 지경인데, 왜 민언련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언론 모니터가 내부화되어 있는 이유도 있어요. 언론감시 결과 가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언론감시를 부산민언련의 중요 축으로 세우고, 미디어교육, 라디오시민세상 등 다른 사업들이 파트너로 반쳐주면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 민언련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미디어센터 역할을 하고, 열린 카페처럼 언론에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미디 토리'가 생겼을 때도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부산민언련 안에서 대안 미디어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협**

민언련이 혼자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안언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대안미디어'를 주요 영역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언론 이슈를 잘 부각하고, 공론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성열**

저는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언론과 관련 없는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고민이 필요해요. 함께 어울려야 사업도 하고 비전도 만드는 거니까요. 야유회를 가는 데도 회원들이 안 오는게 잘 이해가 안돼요. 함께, 즐겁게 활동하고 싶어요.

사실 부산민언련에는 후원만 원하는 회원도 많습니다. 그 분들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회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복성경**

**정수진**

오늘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너무 장밋빛 제안만 하는 것도 같지만 부산민언련은 그런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정체된 느낌에서 벗어나서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변화가 필요 때입니다.

부산민언련은 단체 규모에 비해서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저지르는 느낌' 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권용협

(일동 웃음)

복성경

모니터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노력 대비 눈에 잘 안 띠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이 민언련을 잘 아는 것은 수신료 인상 같은 이슈 정도더라고요.

모니터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문제를 이슈화 할 때도 '이게 문제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언론 환경이 매우 후퇴한 현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관심 가질만한 언론 이슈를 잘 부각하고 공론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부산민언련이 꼭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에서 시민 단체가 2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 20년의 역사를 맞이 한 부산민언련의 어깨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원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부산민언련의 새로운 역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로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20년 친구가 말하는 부산민언련

---

부산민언련의 주인인 회원님들과 손맞잡고 연  
대해준 시민사회 활동가가 말하는 '부산민언련'  
을 한데 묶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기록한 20년 역사이자 부산민언련  
의 맨 얼굴입니다.

글은 회원 가입순으로 실었습니다.

## 선운사의 추억

황미향 회원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예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예요”

대학 시절 술자리에서 ‘선운사’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던 선배가 있었다. 나는 그때 선운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애뜻하면서도 멋스러운 노래에 끌려 언젠가 한 번은 가보리라 생각하곤 했다.

1994년 부산 민언련이 창립되고, 이듬해 봄 40여 명의 회원들과 남도 기행을 떠났다. 녹두장군 전봉준 생가와 광주, 그리고 고창 등 전라남도를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사진 제일 좌측에 서 있는 박우득 회원이 직접 코스를 짜주었고 해박한 지식으로 방문지마다 역사 해설도 해주었던 걸로 기억된다.

2박 3일 일정의 두 번째 날, 어스레한 저녁 무렵 한 민박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선운사 입구 마을이라는 것이었다. 커다란 방에 짐을 풀고 도란도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드디어 선운사를 보는구나 싶

### 약력 및 소개

부산민언련 사무국 초대 간사로 창립의 주역입니다. 사상문화 편집장, MBC심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6년 본회 부대표를 맡아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약간 들떴던 것 같다. 때마침 5월이어서 선운사 등반길에만 오르면 후두둑 지는 동백꽃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선운사를 배경으로 찍은 저 사진에는 내가 없다. 회원들을 위해 민박에 남아 아침밥을 준비할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쉽게도 그 중 한 명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선운사에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95년 5월 '부산 민언련'을 기록한 저 사진 한 장이 조금 더 그림계와 닿는다. 조용하던 김순옥 회원과 친구분, 싱긋 웃고 있는 장길만, 문정임, 이쌍철 회원, 그리고 젊어보이는 허경호, 이강민, 이진규, 배윤기, 김성우 회원... 오랜만에 만나는 탕탕한(?) 얼굴들이 동백보다 더 예쁜 것 같다.



# 민언련은 내 인생의 나침반

안영민 회원



부산민언련이 창립 2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진규 사무국장님을 도와 민언련 창립을 준비하던 1993년이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 나의 사회생활과 민언련은 그 궤를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간을 부산민언련과 함께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되는 시간이었고 내 인생의 진로도 민언련으로부터 기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3년 강상현 교수님, 채백 교수님 등에게 언론 모니터링을 배우며 민언련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언론의 역할과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탐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후 민언련에서 언론 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지역언론의 역할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관한 글들도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4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

## 약력 및 소개

창립의 모태가 된 1992년 대선 모니터 활동부터 참여한 원조(?) 회원으로 이후 정책위원,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부산민언련 각종 토론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청자권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게 되었다. 부산민언련과 맺은 많은 인연들 가운데 가장 뜻 깊은 인연이, 센터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지역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부산시민 중심의 센터로 추진했던 일이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부산시민 중심의 센터를 건립하는데 앞장 서신 신태섭 교수님,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마지막까지 센터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혼신을 다한 정순영 전 사무국장님, 이 외에도 많은 부산민언련 회원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또 감사하다.

4년 후 대학에서 다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돌아와서 복성경 부대표님과 박정희 사무국장님의 연대와 지원으로 센터 정책담당으로서 지역사회의 미디어교육과 퍼블릭액세스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부산민언련으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과 지원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과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등을 통해 부산민언련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나침반인 부산민언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부산민언련이 50주년이 될 때까지 한 회원으로 함께 하고 싶다.

# 내 세포가 기억하는 연대의 따뜻함

문정임 회원



## 약력 및 소개

2회 언론학교 수강을 시작으로 부산민언련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인연을 쌓고 있습니다. 과거 재정마련을 위한 하루 호프와 미디어 교육 활동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셨고, 현재 장길만 운영위원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고마운 손으로 부산민언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 동기 아이가”하며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동기가 있다. 바로 <언론학교2기-1994년> 동기 장호출 씨.

그 질긴 20년 동기가 내게 부탁을 한다. ‘부산민언련 20년 친구’ 소회를 정리하는 명예로운 임무를 도저히 못 쓰겠다고 나에게 전화 한 통으로 떠넘긴다. 이번 6월선거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내 머리 속 지우개가 시키지도 않은 작업을 자주 하는 터라 영~ 자신이 없긴 하지만 기억을 불러 모아보자~.

1994년 4월 봄날, 제2회 언론학교 첫 강의가 있는 날이다. 그곳엘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언론개혁에 끌린 건지. 손석희 강사에 끌린 건지 기억이 없다고 농친다.

범일동 불교회관. 몇 층인가? 계단을 밟아 올라가니 제법 큰 방이 보이고 신발 벗어 얌전하게 몸 옆에 붙여두고 촘촘히 앉은 사람들도 보인다. 누군가 반갑게 맞아준다. 뿌연 기억을 초점 맞춰 또렷하게 더듬으니 반갑게

맞아준 얼굴은... 그래, 웃음이 예뻐던 황미향 씨다.

탁자 위에 수강생들 이름표가 놓여져 있는데, 내 이름은 없고 '문정인'이 있다. 전화로 수강등록 할 때라 발음 또는 청력(^)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문.정.인' 참 좋다. 잘못 적힌 그 이름이 참 좋다. 언론학교 기간 '문정인'으로 살기로 한다.

여기까지 쓰고 몇 가지 기억을 메모했다. 적다보니 부산민연련 10년에 대한 회원들의 기억이 금금해져 10주년 기념책을 펼쳐봤다. 아! 이런, 내 머리 속 지우개가 여기도 있다. 기억에도 없는 내 글이 있고 더 놀라운 건 방금 내가 메모해놓은 내용이랑 거의 쌍크로울99%로 겹친다. 10주년, 20주년의 소화가 어떻게 이렇게나 같을 수 있나? '지난 10년, 부산민연련에 영혼을 담지 않았구나ㅠㅠ' 반성의 시간이 휘익~

'그래도 뭔가 함께 한 게 있지 않나?' 애써서 찾아보니 2011년 희망버스의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다. 또, 한진중공업 앞에 우리 회원들과 부산민연련 현수막을 들고 함께 찾아갔을 때 김진숙 지도님이 "회원가입하고 올라오길 잘했지 뭐유?" 하셨다. '그래 우린 같은 부산민연련 회원이었구나. 나름 부산민연련도 저인망인맥이란 말이 지^^ 새삼 더 반가웠다.

언제부턴가 혼자 움직이는 게 편해서, 연대해야 하는 자리에도 혼자 갈 때가 많았다. 슬그머니 혼자 앉았다 소리없이 혼자 일어나곤 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소속감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거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게 귀찮아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던 나였는데, 오랜만에 부산민연련과 함께 한 시간에서 내 세포가 기억하는 연대의 따스함을 확인했던 거였다.

부산민연련20주년! 전현직 대표님들(고(故)김성문 전대표님의 명복을 빕니다), 전현임 실무자들, 회원님들 애썼습니다.

#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부산민언련

• 심수환 회원



## 약력 및 소개

4회 언론학교 출신으로 각종 교육, 국토기행 등 회원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전문 분야인 미술교육 영역에서 제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교 4기.

생각해 보면 참 그리운 이름이다.

처음 언론학교 시민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지만 내 발로 찾아가서 등록을 한 때가 언론학교 4기였다.

제법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은 기억이 가물거려서 그때의 일들이 많이 희미해지고 당시 동기들이나 앞선 기수 선배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아직 기억하고 있는 이름도 많이 있지만 혹 기억 못할 이름의 당사자가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생략해야겠다. 물론 그 분들의 얼굴은 생생하게 다 떠오른다.) 양정 사무실에서 강의를 듣던 기억과 강의보다 더 소중한 뒤풀이 자리의 추억들도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들이다.

처음 언론학교에 등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임도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시민단체 활동이라고는

전무한데다가 일반인이 언론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은 편이어서(당시 같은 기수들 대부분 대학생 정도의 연령이었는데 나만 결혼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내가 올 자리가 맞는지 한참 동안 눈치가 보였다. 그보다 더 한건 당시만 해도 전혀 의식화되지 못한 순수한(?) 내 의식세계가 그들과 대화하는데 제법 많은 거리감을 준 때문도 있었다.

결혼한 후 늦게야 미술대학을 가고, 80년대 386세대들과 어울려 학교를 다녔지만 데모 대열에 서는 건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 여겼기에 같은 과에 다니는 나이 어린 동기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술을 사취가면서 말리기도 했다. 그 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기들의 표정이란. 그런 내가 졸업을 하고 생활의 방편으로 화실을 운영하며 '한겨레' 신문을 구독했던 것은 모르긴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 데모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느낀 뭇가지가 있긴 있었으나 보다. '한겨레'를 보다보니 더 궁금한 게 있어 '말'지를 받아보기 시작했고, 그 뒤 얼마 안 있어 '말'지 속에 끼워진 간지를 통해 언론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 강의는 대부분 처음 듣는 것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고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다.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도 신기했고 동기들 대부분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미 아는 듯해서 한편으론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강의를 듣고 뒤풀이 자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늦게나마 철이 들려고 애를 쓴 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 후 늦게 철든 나는 부산민연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자랑스러웠고 모임과 사람이 모두 좋아 오래도록 열심히 쫓아다녔다. 격동의 시기에 세상 돌아가는 한심함을 술을 마시며 비판했고, 각종 언론 모니터나 여타 활동에도 열심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돌이켜보면 부산민연련은 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해 준 고마운 곳이다.

내 인생에 큰 변곡점을 들라면 그건 단연코 민언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이 교육과 언론이 일러준 대로 충실히 믿고 따랐던 삶이라면 민언련 이후는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언론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를 두 눈과 두 귀를 제대로 열고 바라볼 수가 있었다. 덕분에 내가 딛고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었고, 내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려고 애썼다. 미술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교육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래서이며, 지금은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학교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비록 지금 부산민언련에서 함께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모든 활동들이 민언련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부산민언련의 소식을 듣고 있고, 갈수록 더 나빠져 가는 언론 환경 속에 분노하며 내 힘을 보태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20년이라는 큰 세월 속에 척박한 지방에서 꾀꿉이 견뎌준 부산민언련이 고맙고 상근자들과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집회 같은 곳에서 가끔은 얼굴 보기도 하지만 꼭 한 번 찾아가서 당신들 얼굴 보고 술 한 잔 사고 싶다. 그건 미안함을 대신하려는 얌은 소행이기도 하지만 기실은 그 시절 그리움에 대한 내 보답이기도 하고 흐려진 기억을 되살리고픈 내 조그만 바람이기도 하다.

내게 이 글을 청해줘서 고맙다. 막연한 그리움이 글을 쓰다 보니 더 짙어졌다. 20주년 행사에 꼭 찾아가야 할 명분이 생겼다. 그 땐 옛날처럼 많은 술을 마시진 못하더라도 그리운 얼굴들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언론에 눈 뜨게 한 3회 언론학교를 추억하며

● 안지숙 회원



## 약력 및 소개

3회 언론학교에 참여했고, 이후 영화비디오반, 미디어교육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미디어교육 교재 발간과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도 참여해 큰 도움 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부산민언련으로부터 수십억 년 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간지 돋는 페이스북 활약으로 부산민언련 소식을 전해주던 복성경 부대표, 초딩 남자에 같은 목소리로 씩씩하고 짤막하게 안부를 챙기고는 다짜고짜 집필 회원으로 결정됐으니 원고를 써달란다. 거기다 20주년 기념행사를 치러야 하니 후원금도 내란다. 안 그러면 좌절할 거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온다. 아, 무섭다. 이 정도면 조폭 수준이다. 조폭한테는 개겨 봐야 피칠갑밖에 더하겠나. 심약한 나는 잼싸게 ‘그럼그럼, 쓰라면 써야지’라고 착하게 대답했다. 역시 부산민언련이다.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10초 안에 끌어내는 부산민언련의 힘을 살벌하게 절감하며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본다.

돌아보니 내가 부산민언련에 첫발을 디딘 게 18년 전이다! 무려 18년! 어감상 숫자상 전생같이 까마득해야 할 거 같은데, 어머니~ 어쩌면 이렇게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지……. 뭔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18년 세월을 허랑방탕 흘러온 거 아닌가, 고개를 쳐들려는 맹렬한 자기반성의 움찔거림을 일단 무시하고 양정동 지하실에 터를 잡았던 부산민언련 사무실로 들어간다.

바야흐로 부산민언련 3회 언론학교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 몇 시간 전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부일인지 국제인지 지역신문을 설렁설렁 넘기다 ‘언론학교 개최’에 눈길이 쫓혔고, 뒷에 씌었는지 나도 모르게 까만 전화통을 끌어당겼고, 언론학교 개최하는 장소가 어딘지 물었고, 옷을 챙겨 입었고, 머플러를 휘날리며 바람 부는 겨울저녁 거리로 나서서 양정 가는 버스에 올라탔고, 마침내 부산민언련의 지하사무실 계단을 밟게 되었던 것이었다.

“저… 언론학교 들으러 왔는데요.”

낮선 데를 잘못 찾아든 것 같아 급소심해진 나는 어병한 표정으로 접수대에 다가갔다. 언론학교 회비 3만원을 내는 내게 정순영 간사는 대학 갓 졸업한 어린 친구답지 않게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앗, 만 원 모자라는데 다음 강의 들으러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 순발력 있던 순영의 접수태도에 감탄하며 돌아서자, 대학생뻘 나는 회원이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멘트를 날렸다. 언론에 ‘언’자도 모르는 나는 시키는 대로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얌전하게 착석했다. 첫 강사가 채백 교수였는지 강상현 교수였는지 또 다른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강의내용도 기억 안 난다. 다만 당시 지병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로 만사가 시들하고 축 처져 있던 마음

속에서 비분강개라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모종의 열기가 내 뺏 속과 이마를 달구던 것만은 기억한다.

6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언’자에 봄의 싹 같은 맑은 눈을 뜬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다. 태생적으로 수구꼴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나의 뇌에 언론 자유, 정치권력, 정경유착, 뉴스의 공정성… 같은 말들이 새겨졌듯, 언론학교3기를 함

께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에도 정론에 대한 공감의 문신처럼 스며들어 갔다. 덕분에 강의 뒤에 이어졌던 뒤풀이는 매번 뜨겁고 유쾌했다.

인론학교를 수료한 뒤,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영화감상과 토론으로 채워졌던 영화반 동아리 활동을 하고, '미디어 바로보기'라는 책자의 원고를 쓰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디어교육분과 위원으로 머리를 싸매는 노릇을 몇 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언'자에 눈을 뜨게 해 준 말들, 낯설고 단단했던 그 말들의 낙관 때문이었을 거라고, 나는 돌이켜 생각한다.

## 참 대견한 부산민언련

윤대원 회원

부산민언련이 창립 20년이 되었군요. 내 나이 스물을 갓 넘어설 때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부산민언련은 스무살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나는 세 자녀를 둔 마흔 중반의 진짜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할 새도 없이 대학신문사에 입사(?)하였지요. 여러 이유가 없지 않았지만 아마도 언론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대학신문기자로 몇 년을 지내면서 강의실 보다 퀘퀘한 최루가스로 뒤덮인 운동장이나 학교 앞 사거리와 서면, 남포동의 거리가 더 익숙해지면서 동경은 실망과 반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언론도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권력의 폭압과 횡포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친절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지요.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

### 약력 및 소개

신문모니터분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운영위원을 거쳐 지금은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무사 업무 외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이나 소식지 글쓰기에도 참여하는 장수 회원입니다.



는 목탁이라는 수사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부산민언련이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언론을 바로 세우자'는 부산민언련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사무실, 장마철이면 빗물받이통이 줄줄이 세워지고, 어수선하게 쌓여 있는 신문이며 잡지, 낡은 벽에서 잉크와 뒤섞인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신문, 방송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영화, 사진, 산행동아리를 통해 회원들간 친목도 다졌던 것 같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난상토론의 술자리와 새벽까지 이어진 스타크래프트대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때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부산민언련의 든실한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에 충실한 이들도 있겠지요. 부산민언련은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다양화

되고 그 완성도도 높아졌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꽤 괜찮은 시민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한 20년!! 여전히 언론이 세상을 바꿀 만큼 바로 세워 지지 못했고, 부산민언련은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산민언련에게 괜찮은 일화가 있군요.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마틴 니컬러는 독일에 나치가 등장해서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침묵했다. 유대인이 아니니깐. 나치가 사회주의자를 잡아갈 때 침묵했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깐. 나치가 가톨릭교도를 잡아갈 때 침묵했다. 가톨릭이 아니니깐. 나치가 노동운동을 잡아갔을 때 침묵했다. 노동운동가가 아니니깐. 그러다 나치가 자신을 잡으러오자 주위에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침묵이 싫다.”(출처: 기억 안남)

부산민언련 20주년, 참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민언련과 얽힌 흐뭇한 추억들

● 이승환 회원



## 약력 및 소개

신문모니터 분과에서 활동했고, 모니터팀 반장을 맡아 중요한 시기 모니터 결과를 쏟아내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배출(?)한 언론인으로서 현재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일하며 '약한 자의 힘이 되고자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 20년 어딘가에 끼어 있을 제 인생(?) 4년을 추억하니 그 시간과 얽힌 사람들 덕에 또 흐뭇합니다.

훗날 역사가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들쭉일 때 부산에 있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신문의 지방선거 보도 행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 보고서가 벼락같이 쏟아졌다'고 기록할 2002년, 저는 우연히(?) 신문모니터 반장이었습니다. 당시 민언련 사무국장인 김남 뒤편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어쨌든 훗날 역사가 '그해 12월, 시민단체는 하나를 잃었고 언론은 하나를 얻었다'고 기록할 게 분명한 2002년, 저는 우연히(?) 경남도민일보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경남도민일보에 저를 추천해준 분이 아까 그 김남 뒤편었는데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훗날 역사가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출신은 언론을 보는 눈 못지않게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웠다'고 기록할 수밖

에 없는 2006년, 저는 또 우연히(?)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넣으면 많이 아픈 8살 아예지 양과 마흔뒤 됐고, 정순영 씨와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뜻밖에도 마음 한쪽에 뭔가 불덩이 같은 희망이 솟았습니다. 이제 부산민언련이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과 더불어 4대 관변단체로 급부상하겠구나! 일처리 속도만, 그저 속도만 따지면 LTE는커녕 시티폰 또는 삐삐와 견줘야 마땅할 '박정희' 사무국장을 주저앉힌 데는 이런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이제 사무실을 센텀시티 한 가운데 20층 쯤에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런 잔정조차 없더군요. 완전히 기대를 접고 다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소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나 의료 같은 하찮은 것 말고 부산민언련이나 어서 민영화가 돼서 기업들이 돈을 쏟아 붓고 싶어 환장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작은 기대마저 접지는 않았습시다만.

저는 아직도 부산민언련에서의 경험과 감성을 잘게 썰어 길게 소비하며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입사한 지 만 1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받은 게 많나 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군요.

2012년 대선 때 투표하러 가면서 6살 딸에게 남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넌 원칙과 상식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라. 그건 당연히 딛고 버틸 땅이지 애써야만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란다."

당연히 역사에 기록되고도 남을 이 명언(?)은 선거 결과 때문에 야사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로 묻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이 팍팍한 일상을 웃으며 견뎌내는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분들과 '부산민언련'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어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역사가 '그 절망의 시기에 따스한 희망 한 줄기는 부산 수영구청 옆 한 시민단체에서 비롯했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201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부산민언련!

# 자주언론·방송분권을 향한 여정

• 이희길 회원



## 약력 및 소개

2002년 부산MBC 노조위원장 시절 연대활동으로 인연을 맺게 되어 지금까지 회원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거 언론 학교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고, 현재 부산MBC국장으로서 일하며 지역언론의 자주권 회복, 방송분권 회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 지역방송 현안문제로 부산민연련과 첫 인연

20년은 의미있다. 성년이란 권리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 새로운 시작이고 성숙의 의미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한 부산민연련의 앞으로 10년 2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부산민연련과의 인연은 부산MBC 노조위원장이던 2002년 부터다. 위성방송(Skylife) 동시재송신 반대운동을 꾀던 지역방송 노조위원장들이 '지역방송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방분권운동과 연계하고 있던 때였다.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회사간부였던 S모 선배가 부산민연련 회원 상대 강연을 제안하면서부터다. 당시 위성방송 방식대로 '동시재송신'을 하면 부산MBC는 존재가치가 상실되게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방송만 전국으로 직접 송출되고, 그 지역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지역뉴스나 로컬 프로그램조차 볼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우리는 지역말살적 방송정책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전국 TV생방송 토론과 정치권을 향한 설득과 농성 집회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폈다. 결국 당시 방송위원장이 사퇴했고 방송법 78조를 개정했다. 아무도 예상못했고 당시 국회의원들조차 불가능할 거라고 하던 때였다. 이후 방송정책에서 '지역성은 '공영성과 함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방분권운동을 확산시킨 계기도 됐다.

이때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었고, 그뒤 서울 민언련에도 가입했다. 부언련 언론학교 때는 <뉴스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강사도 했고, 토론회 때는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노조를 떠난 뒤에 그 역할을 후배들에게 넘기고 다시 기자로 돌아가 부장, 국장을 거쳤지만 당시 내세웠던 '방송분권'은 움직일 수 없는 가치였다.

### “지역언론 자주권 회복, 방송분권 쟁취해야 ”

십수년 전의 이런 기억 때문일까? 지금의 지역언론의 위상을 돌아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없이 쪼그라 든 지방, 특히 부산의 도시 모습을 투영한다. 부산MBC에 25년간 이어진 자사출신 사장 대신 서울간부출신 낙하산사장으로 되돌아 간 것도 한 예다. 신문은 지방지가 고사직전이다. 20일 가까운 부산MBC 낙하산사장 반대운동에 부산민언련 등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지성명이나 1인시위로 힘을 보탤다. 여야 시장후보 2명이 반대성명도 냈다.

부산MBC는 서울MBC의 설립을 지원했던 MBC 모태사요, 원조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서울에 종속된 이후 자율경영은 이름뿐이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아무 대가도 없이 주식을 강제이관 받은 서울MBC가 대주주로 행세하며 지방MBC를 식민지처럼 지배한다. 이제 이런 반시대적인 종속구도를 깨야 한다. 부산을 서울과 대등한 관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지방이 서울에 강제로 종속됐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언론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지역언론의 자주권 회복, 방송분권 쟁취야말로 지역사회, 정치, 언론, 시민운동에 던져진 첫 번째 숙제다.

# 아쉽고 미안합니다

● 안병규 회원



## 약력 및 소개

운영위원, 부대표를 거쳐 2010년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언론 환경이 퇴행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를 맡아 언론장악저지 투쟁은 물론이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부산민연련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에 첫 인연을 맺었으니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운영위원과 부대표, 대표 등 분에 넘치는 직위가 주어졌고 미력하나마 이의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직만 걸어 놓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함과 자책감이 앞선다.

특히 대표 시절 부산MBC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었던 <TV시민세상>이 폐지된 것은 깊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부산MBC의 폐지 방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의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증과 막무가내식 관련인사 숙아내기, 그리고 개인적인 무력감이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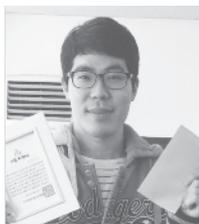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주체로서의 시민사회, 제작지원 공간

으로서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그리고 프로그램 출구로서의 MBC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가 보다 유기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이런 유기적 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액세스 프로그램의 운영협의회장으로서 그와 같은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약 그랬더라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에 보다 더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부산민언련의 성년을 맞아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새 출발의 옷매무새를 여미어 본다.

## ‘낙관적 믿음’은 우리의 힘

● 오혁진 회원



### 약력 및 소개

2004년 신방과 대학원 재학 당시 모니터 모임에 참석한 이후, 줄곧 부산민언련 모니터 활동에 참여하며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소식지 <시민넷>에 언론비평을 쓰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민언련 으뜸 회원이기도 합니다.

부산민언련이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이면 제가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때 비록 저는 몰랐지만, 사회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 부산민언련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사춘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해 갈 때, 민언련 역시 한발, 한발 성장하여 지금의 민언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과거의 부산민언련의 모습이 지금 알고 있는 모습보다도 훨씬 많은데, 제가 과연 20주년 글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민언련의 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기 보다는 저의 몇 년 간의 모니터 활동의 소회를 적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듯합니다. 비록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부산민언련 역사의 끝자락을 작게나마 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민언련의 첫 느낌은 ‘낯설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부산진역에 있을 때였는데, 유흥업소에 둘러싸인 사무실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안은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산민언련의 낯선 분위기에 곁돌 때, 무엇보다 힘들고 낯설었던 것은 신문 모니터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을 제대로 접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역의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넘치는 정의감(?)에 비해 모니터에서 요구되는 정치, 경제적 지식은 턱없이 모자라 모니터는 고사하고 신문 기사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내가 과연 모니터 활동을 제대로 하긴 했을까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시 모니터 활동을 같이 하신 사무국장님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을 처음 시작 할 때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보도를 찾아낼까’ 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시간이 지나고 모니터 활동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후에 제가 겪게 될 고민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민언련 활동을 하는 다른 회원들도 한번쯤은 겪었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활동들이 과연 언론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민언련 활동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민언련 활동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시원스레 대답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확답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들이 그러하듯이 민언련 활동들이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렵고, 최근에 언론 상황들은 심지어 퇴보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민언련 활동과 여러 연대 활동들이 세상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민언련 활동을 이어 온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 믿음’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대야말로 우리들이 조금해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채 민언련 활동을 하게 만드는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언련 회원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현실 상황이지만, 모두들 낙관적 믿음으로 지난 20년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로도 쉽없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묵임과 역임의 반복, 나와 부산민언련의 인연

• 이영우 회원



## 약력 및 소개

2005년 KNN(당시 PSB) 노조 신입사무국장으로서 부임해, 오로지 성명서를 잘 쓰고 싶다는 일념으로 민언련 글쓰기강좌를 찾은 것이 인연이 된 회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위원장을 맡아 MB언론약법 저지를 위한 활동에 연대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2년 부산민언련 으뜸 회원입니다.

요즘은 말초신경 끝까지 침투한  $\text{CH}_3\text{CH}_2\text{OH}$ (학명: 에틸알코올)로 인해 메모리의 용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마무리 해야만 하는 사명감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

때는 2005는 초 봄, 아주 모범회원이었던 나는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한통의 문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영향이 미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글쓰기 강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당시 나의 상황은 새로운 임무인 KNN(구 PSB)노동조합의 신입 사무국장. 정의와 열정 패기로 뿔뿔 뭉친 당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즉시 달려간 그곳은 아주 유명한 언론사인 국제신문 뒤쪽의 작은 사랑방 공간.

도착 당시 엄청난 글쓰기 내공들을 숨기고 있는 강호의 강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단순히 성명서 한번 잘 써

보겠다는 일념으로 참가한 나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그보다 더 한 것은 어마 무시한 내공으로 미인계 전략을 숨기고 웃고 계시는 민언련 모 사무국장. 이렇게 시작된 회사했던 어느 봄날의 민언련과의 첫 만남. 그러나 그날 빠진 혼돈 속에 아직도 나는 길을 찾고 있다.

(중략)

또 다른 굴지의 언론사 부산일보 임원실 앞

삭발한 머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조폭외모의 소유자가 되어 버린 나.

“편집권 독립하라. 임원면담 요구한다” 난 또다시 앞줄에 서서 외치고 또 외쳤다. 그때 외마디 비명처럼 나의 폐부를 찌르는 일성. “당신 누구야?” 근데 갑자기 나도 이런 의문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또 다른 중략)

이런저런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KBS, 부산MBC, KNN 자칭 독수리5형제 언론노조 지부장들. 부산민언련의 또 다른 책략인 ‘부산언론문화제’란 미명하에 우린 남들 다 한다는 장기자랑 대신 노동가요 제창 중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민언련이 펼쳐놓은 팔괘진에 빠진 인물이 나뿐이 아니라는 약간의 위안 ㅋㅋ ..

미루어 짐작컨대 이 글을 읽고 있는 수백 만의 독자들 또한 무시무시한 민언련의 마성에 빠져 한쪽 발은 묶여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고, 또는 올곧게 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이다. 제발 30주년까지는 이 마성의 진법에서 풀려 자유로워 지시길 간곡히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민언련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계속 되어야만 한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험하고 험한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을 위한 고난의 역경을...

혹시 안 바쁘시면 '부산민언론 창립20주년 후원 프로젝트' 후원 좀 ... 일회성 후원 티켓도 있구요.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연간 후원회원님이 되시면 상상할 수 없는 혜택과 즐거움이 .....

(P.S: 중략한 부분의 자세한 일화는 30주년 특집판을 기대해주세요)

## 오늘 하루도 즐겁게

### • 이상기 회원



시민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념, 조직, 자원, 홍보, 역량. 난 결국 사람이라 생각한다. 내가 부산민언련에 첫발을 내디딘 계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입 권유 때문이었다. 십여 년 전 직장을 계기로 부산에 내려왔을 때 나는 홀몸(?)이었다. 전세 기간이 남아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나만 홀로 원룸 생활을 했다. 외롭다는 핑계로 부산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 “교수가 공부는 안 하고 술만 쳐마시나?”는 질책에 뜨끔해 광안리 바닷가의 바(Bar)를 혼자 해매고 다닌 적도 많았다.

이런 나에게 부산민언련 정기 정책모임은 매달 손뚱아 기다리는 날이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포를 푸노라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낮설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분위기 속에, 다른 단체와의 연대 모임도

#### 약력 및 소개

운영위원, 부대표를 역임하였고, 신문모니터 교육과 선거보도 모니터 자문 등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늘어났다. 나도 멘봉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단체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는 편하지 않았다. 각종 단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울분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낄 기회는 자꾸 줄어들었다.

부산민연련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뒤풀이 자리라도 좀 유쾌하고 즐거울 수 없을까요?”라는 나의 항변은 배부른 소리, 끈대 소리가 되어 묻혔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가졌던 나의 지론은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자’는 것이다. 이념과 명분도 좋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지쳐 쓰러지는 동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이메일 및 카톡 인사말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부부가 단지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면 그보다 더한 생지옥이 또 있을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이왕이면 즐거워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우리의 갈 길은 결코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 내 딸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최종숙 회원



## 약력 및 소개

대학언론 기사 출신으로 부산민언련 창립 때부터 교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참여는 2006년 즈음입니다. 선거보도 모니터 모임에 참여했고, 대학언론기자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기획팀장으로 시청자 참여,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일주일이지난 오늘, 각 단위별로 재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어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머리속을 비우고자 과하게 웃어보기도 하지만 마음이 헛헛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과도한 감정이입은 이제 마흔 중반을 넘어선 나이 탓도 있지 싶습니다. 친구들의 아이들이 모두 그 또래들이라 더 격하게 감정이 실리는 듯 합니다.

지난 10여년, 내가 보고싶은 뉴스만 찾아보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사고가 발생하니 뉴스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정주행하고 있으니 가라앉아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께서 '살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질책했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사진 찍겠다 나선 공무원을 해임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언론은 안타깝게도 미국의 한 언론사입니다.

한 집안에 큰 사고가 나도 집안의 큰 어른이 사고를 수습합니다. 큰 어른이 나서서 한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간다면, 그 흐름은 마녀사냥으로 넘어가겠지요. 3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어른들이 '여편네'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어머니께 막말을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집단적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고, 분노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할 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지적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대형사고에 대한 재난보도 지침은 물론이고, 인권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현장에서 다 쫓아내고, 과당경쟁의 바다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언론인들을 현장에 투하해 뽑아내는 기사들이 오히려 온 국민을 더 피해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언론을, 방송을 보는 것 같기만 합니다.

방송노조에서 6년, 미디어오늘에서 6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 뒤 부산으로 귀향했을때가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랑스런 딸 린이가 저와 함께 세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6개월 남짓된 그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부산민언련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마침 선거보도 모니터가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다시 부산의 언론과 보도를 정주행하며, 이 도시에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 도시에 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처럼 좌충우돌 하던 세월을 묵묵히 지켜봐준 친구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뉴스를 보지 않고도 험한 세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뒤를 지켜주는 친구. 그 친구가 10년 뒤에는 다시 내 딸의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험한 세월에 든든한 조타수가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민언련의 성인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길

최용국 회원



## 약력 및 소개

현 운영위원이며 민주노총부산본부 위원장을 오래도록 역임 하셨습니다. 시청자주권협의회 활동으로 우리 단체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부산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오랜 시민사회운동 경험에서 오는 지혜로 큰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젊을 때 았으나 서나 신문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에 2~3종 신문을 꼼꼼하게 다 읽는 스타일이었다. 회사에서 신문중독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신문을 읽었다. 아마도 학창시절 즐기만 했으니, 두꺼운 책 읽기는 훈련이 안 되어있고 부담이 될 한 신문을 통해서 사회와 지식을 알게되는 재미에 빠졌던 것 같다. 신문을 읽으면서 기사의 행간을 읽고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노동운동할 때 대체로 노동자들이 투쟁의 당위성만 앞세우고 여론을 무시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모니터하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현대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고 여론의 바탕은 언론이다. 한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제 후퇴하지 못할 정도로 탄탄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그런 말이 무색하게 많이 후퇴하고 말았다. 후퇴하게 만든 일등공신은 보수진영이 장악한 언론 때문이다. 그래서 민

언련의 활동이 중요하다.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덧붙여서 민언련이 언론전문가단체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는 이미지와 활동을 좀 더 보강해 봤으면 한다. 부산민언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쁘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사무국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부산민언련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상민 회원



## 약력 및 소개

2010년 민주노동부 부산본부 조직 부장으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에서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단체 회원이 되었습니다. 늘 헌신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아 회원으로서도 '짱'입니다.

저는 요즘 지상파 방송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종이, 인터넷 신문도 1~2개 정도만 눈이 가는군요. 이명박 정부와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그 부정적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이 추운 겨울을 넘기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은 국민의 촛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아니 사실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부산민언련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값있고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에 민주노동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시민연대 회의를 통해 부산민언련, 언론노조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박정희 국장님의 권유로 민언련 회원이 되었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투쟁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선 MBC, KBS의 파업 투쟁을 함께 하며, 민언련의 소중함도 느끼고 정말 각

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지요.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별을 볼 수 있듯이, 암울한 언론환경으로 인해 부산민언련과 같은 시민단체의 존재가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거짓과 조작의 정치는 언제나 참담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민중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의 활동이 진실과 정의에 맞닿아 있는 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산민언련의 2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응답하라 1994’? 2024년을 미리 소환하면 안 될까?

● 최용수 회원



## 약력 및 소개

정식 회원 가입은 2009년이지만, 인연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즈음 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고, KBS 수신료 공청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현직 KBS PD이면서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언련과 가장 끈끈한 연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세상에 태어나던 해, 199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창립선언이 있던 1994년 4월 30일, 전국의 신문과 방송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북한의 여만철 일가의 귀순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며 정·재계의 막후에서 실제로 통하던 김현철씨의 뇌물수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그해 7월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뉴스로 남북이 급격한 긴장관계로 돌입하던 시기였으며, 9월에는 세상을 경악케 한 지존과의 검거 소식으로 언론이 비등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은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기록될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연이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그리고 12월에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까지 1994년은 1년 내내 숨 돌릴 틈없이 대형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16일! WTO 가입 국회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새로운 위기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4년이라는 이 상징적 시공간을 상업적 코드로 소환해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던 ‘응답하라 1994’란 드라마가 무색하게 이 시기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확대된 민주주의 영역들이 급격히 위축되던 때였다. ‘민주화 이후’(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열린 공간을 지칭) 수세에 몰려있던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민주개혁 세력 일부와 수구기득권 세력의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이 단순히 제도일부의 개선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자당의 출범으로 등장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우리 사회에 신보수주의 이념과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정권 내내 확산시키며 민주화 항쟁당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상당부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의 중심은 조중동 족벌연론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신보수주의 이념의 생산 및 유포자로서 자기역할을 규정하고,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이끌어갔다. 민주화 이후 폭증한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적 요구를 ‘진보’와 ‘좌익’의 이념으로 프레임화하고 ‘좌경용공’, ‘친북좌빨’이라는 선정적인 낙인찍기를 통해 철저히 무력화시켜 나갔다.

1994년은 이런 시대적 반동이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이 때 부산민주연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연련)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영삼 정권의 아성이었던 부산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든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들이 위협받는다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 위협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민연련이 보여준 노력은 그래서 그 성과뿐만 아니라 그 노력 자체만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바람이 있다면 과거 TV와 신문으로 대별되던 올드미디어 중심의 운동방식을 SNS와 팟캐스트로 대별되는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시민들의 연대로 확대하는 일이다. 옆에서 그동안 지켜봐 온 개인적 소감으로는 지금까지의 부산민언련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더 많은 소통과 연대를 통해 10년, 20년 뒤에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시민들의 연대체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건투!

# 엄마의 스무살을 축하합니다

● 박지선 회원



저는 미디어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선입니다. 제목에 난데없이 웬 ‘엄마’냐구요?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미디어의 모(母)단체가 부산민언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민언련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몇 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여기선 미디어 구성원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산과 역할을 해주신 부산민언련과의 추억을 더듬어보고자 합니다.

## “뚝!뚝!뚝!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2010년,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부산민언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독립다큐멘터리, 미디어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친구들이네요. 전부터 부산민언련과 함께 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미디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자신의 꿈과 생계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공지되었

### 약력 및 소개

독립다큐를 제작하는 ‘평상필름’ 일원으로 처음 만나, 지금은 미디어협동조합 미디어 대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 지원 활동으로 큰 활약을 보였고, 미디어 활동가들의 연대와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입니다.

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역에서 카메라를 들고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건강한 몸(주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부산민언련이었습니다.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는 부산민언련이 도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론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고, 거기다 공간까지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 그렇게 부산민언련과의 더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9개의 책상이 다닥다닥 들어서고, 자기자리에서 의자만 돌려도 9명의 회의가 즉시 가능한, 좁고도 넓은 미디토리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미디토리의 시작을 응원해 준 분들은 민언련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립영화운동을 해온 평상필름과 공간을 내놓는데 동의해준 디자인오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부전시장에서 장을 봐서 한술밥을 먹는 미디토리가 안쓰러우셨는지, 부산민언련 상근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도 가끔 근사한 반찬과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투척해주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 이제는 든든한 벼로

그리고 1년여 남짓, 드디어 미디토리는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법적으로 독립하여, 2013년 10월 부산민언련사업단 미디토리가 아닌, 미디토리협동조합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무살의 부산민언련과 평상필름, 오지필름이 함께 미디어공간 '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 외에도 시민들이 쉽게 방송에 참여하고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해온 부산민언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미디어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 회원 한 분, 한 분의 응원이기도 하겠지요?

# 앞으로 스물 발자국, 온기와 끈기를 보태어

허소희 회원



올해 봄은 유난히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는 바람이 제 어깨를 밀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괜히 짧은 치마를 입어보는 만용을 부러보고 싶기도 합니다. 흔히들 봄바람 났다고 하죠. 요즘 민언련에도 모처럼 활력이 도는 데요. 사무실 제 뒷자리에는 부산민언련 선생님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20주년 사업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 좋은 날을 축하하는 자리라 그런지 두 분은 지치는 기색 하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정수진 부대표님의 온기까지 더해져 하루하루 사무실 기온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약력 및 소개

(협)미디토리 근무. 2009년 재정마련을 위한 하루호프에 자원활동을 했고, 그 뒤 모니터 활동을 하며 회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민언련에서 1년간 상근 활동을 했고, 이후 미디토리로 전직했지만 여전히 회원으로서 행사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주년 활동백서에 글을 쓰면서 저의 행적들을 먼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매일같이 출근했던 신문사에서 묵은 짐을 정리할 때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흩어지던 선배들을 보며 무수히 썼던 말과 글이 증발하는 느낌과 그동안의 시간이 결국엔 아무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다투며 밤이 하얗게 새도록 쏟아냈던 질문들은 사라지고 '좋은 시절이었지.'라는 한 문장만 남겨지는 건 정말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중 가장 컸던 건 '나보다 우리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것과 계속 그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이뤄졌고 부산민언련을 거쳐 미디어토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도 조금 변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이 어디든 카메라를 들고 튀어나가던 저는 어디갔는지 어느새 엉덩이는 무거워지고 일상의 안정과 평온을 찾는 마음만 커졌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보자면 조중동 종편 출범을 저지해야 한다는 간절함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켓을 들고 꿈쩍없이 서 있어야 하는 데서 오는 당장의 고통이 더 중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은 신념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을 가치롭게 하는 건 신념을 이어가는 끈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뜨거움보다 은근한 온기와 끈기인 것임을. 항상 제자리를 지키는 부산민언련 선배님들을 보며 배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신념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삶터에서 '우리의 고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온 부산민언련의 스물 발자국을 축하하며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걸음에 온기와 끈기를 보탬니다.

# 민언련, 내가 영원히 빛나게 해줄게요!

● 조보고파 회원



## 약력 및 소개

2012년 언론학교를 수강한 이후 모니터교실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며 회원이 되셨습니다. 자발적인 회원 참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 회원이기도 하신데요, 2011년 부산민언련 으뜸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운영위원으로 맹활동 중입니다.

민언련~몇 년 전 신문에서 처음 부산민언련이란 단어를 보았다.

그리고 만난 언론학교에서의 민언련!

처음 서면 사무실에서 만난 부산민언련이란 환경은 무척 낯설었지만 언론학교가 끝나고 주저없이 회원이 되었고 그냥 회원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나의 첫 번째 시민단체 민언련이 올해 20살이라고 그린다.

그동안 회원활동도 신통찮았지만 시간 나는대로 언론학교도 기웃거리고 그곳에서 언론으로 세상과 소통 하려는 멋진분들도 만나고, 부산역과 서면에서 짹짹은 시민홍보활동도 해보고, 아들 형철이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어영부영 운영위원회도 되고 민언련에서의 나 자신 모습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갔다.

항상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나는 부산민언련에서 어떤존재일까?"이다

딱히 하는 활동도 없이 매달 회비만 내는 회원인 건 아

닌지, 뭔가 회원으로서 단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해내는 열성 회원인지~꿈꿈이 따져보면 의문점투성이 회원인 게 정답인 것 같다!

게다가 하는 직업이 있다보니 바쁘다며 핑계를 둘러대면서도, 나를 어디가서 부산민언련이란 시민단체에 속한 개념시민인 척하면서 우쭐 쟈 척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간 부산민언련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어서 괜히 혼자 답답해하고 가끔은 탈퇴(?)의 용기도 내곤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우리 사회의 민심을 제대로 알아보고 분석하고 바로 잡아가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 회원님들을 보면서, 또 경제적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자원봉사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개념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민언련 속에 넣어보려고 애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특히 사무실에 오면 정신없이 일하시다가도 바쁘게 맞이해주는 복성경 부대표님과 박정희 사무국장님의 웃음과 대화가 또 나를 여기 이 단체에 머물게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부산민언련 20살 생일잔치에 뭔가 조금은 더 눈치껏 돌아보고 살펴서 말은 부분이라도 움직여주고 더많은 회원배기운동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주의 이름'으로 내가 소소하게나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개념시민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일거리를 만들어 보아야 할 것 같다.

늘 고민하고 계획 세우는 나만의 잘하는일~동네방네 신문만들기라도 열심히 자원 봉사해야 되지않나 싶다!

우리 동네, 우리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소통하고 마을을 더 나은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동네방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싫어서이다!

20살 맞이한 우리 부산 민언련~내가 멋지게 만들어 영원히 빛나게 해줄게요!

## 스무살 청년, 더 당당하게!

● 최수영 회원



“부산민언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해야 하지 않나요?”

부산민언련과의 회원으로서 인연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의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빠듯한 살림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 단체로서 민언련의 정체성이 오히려 회원을 언론 관련 인사들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 활동하는 실무자에게 회원가입 권유는 어렵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정과 형편을 서로가 이해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낮두 껌개? 회원가입을 들이대는 단체나 활동가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언짢아도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 실무자 사이에 주고받기식이 아니냐는 회의적 관점도 있으나, 회원가입을 계기로 단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궁

### 약력 및 소개

현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늘 관심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회원입니다.

정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무살이 된 부산민언련도 더 낮두꺼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부산민언련을 알게 된 것은 부산환경연합에서 상근을 시작했던 2001년부터니 1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회원들도 늘었고, 사무실도 몇 번 옮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만 20세가 된 셈입니다. 우리사회는 성인식이라는 관습으로 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물론 온전하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민언론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온 부산민언련을 기억하고 격려합니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한 부산민언련의 지난 스무해를 시민의 한 명으로서 기쁘게 축하드립니다. 스무살 청년이 된 부산민언련이 더욱 당당한 활동으로 후퇴한 민주주의와 위협받는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는 멋진 시민의 벗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무살 청년! 부산민언련 빠샤!~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고(故) 김성문  
대표님을  
추모하며

## 헌신과 사랑 잊지 않습니다

고(故) 김성문 의장님(당시 경성대 신문방송학 교수)은  
크게 알아주지 않는 시민단체 대표직을  
믿음과 봉사의 마음으로 맡아오셨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이들을 위해 기꺼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중략)...  
고인이 되신 김성문 의장님의 명복을 빌며 그 뜻을 기립니다.”

-2007년 「시민넷」 호외호 추도문 중에서

고(故) 김성문 대표님은 2002년부터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운영위원을 맡으셨고,  
2005년 2월부터 공동대표를 맡아 열정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밖으로는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운동에 힘을 쏟으셨고, 안으로는 회원 간의 교류와 화합을 소중하게 생각  
하셨습니다. 하기에 2006년 7월 20일 타계하셨다는 소식에 부산민언련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선뜻 나서지 않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직을 마다 않고 맡아주셨  
고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주셨기에 회원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욱 컸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이제 청년이 된 20살 부산민언련은 고인의 헌신과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작은 지면을 빌려 표합니다.

고(故) 김성문 대표님, 고맙습니다.



## 故 김성문 대표

(1956. 10. 6 ~ 2006. 7. 20)

### 약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독일 뮌스터대학교 방송학 박사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산경남언론학회 회장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상임대표  
부산 MBC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운영위원장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iKi) 조직위원/이사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센터(MCC) 소장

### 주요저서

-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저서,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방송영상의 실제적 이해 (저서,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멀티미디어시대의 방송 (저서, 한국학술정보, 2001)
- 영상이야기 (저서, 경성대 출판부, 2004)
- 두번째 영상이야기 (저서, 경성대 출판부, 2006)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창립선언문  
역대임원  
부산민언련 회원명단

20년기념사업을  
후원해주신 분들

## ‘제4부’ 언론을 지켜보는 ‘제5부’ 시민언론의 출범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안테나이다. 그러한 언론의 창이 때때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언론의 안테나가 뒤틀려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언론은 힘있는 자의 오만과 가진 자의 편견에 의해 이리 더럽혀지고 저리 뒤틀리는 상처를 많이도 입어왔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할 우리의 눈은 자주 맹목화되었고,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우리의 귀는 종종 난청화되었다. 이제 그러한 맹목을 깨고 우리의 눈은 열려야 하고, 이제 그러한 난청을 깨고 우리의 귀는 뚫려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민주적인 창이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민주적인 안테나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한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언론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사회가 민주적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언론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을 바로보고, 민주적인 언론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읽고 또 세상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국민과 시민을 위한 언론이 활짝 열리고, 국민과 시민에 의한 공론이 크게 성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국민과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적인 언론이 우리

## | 맑고 바른 언론, 참언론을 위하여 |

사회의 지배적인 언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 민주화'와 '민주의 사회화'를 위한 시민 주체의 언론운동에 하나의 작은 불꽃을 지피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언론이 오락의 창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닦아낼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언론이 왜곡의 안테나로 있을 때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언론이 맑고 바른 언론, 참언론으로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데에도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언론상황은 지금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언론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언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앞으로의 언론에 대한 기대도 역시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성된 시민의 눈으로 항상 우리 주변의 언론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제4부' 언론을 지켜보는 '제5부' 시민언론으로 언제나 서 있을 것이다. 우리의 언론을 위해, 우리의 시민언론을 위해.

1994년 4월 30일

역대 임원

연도	대표	부대표	감사
1994. 4	강상현, 채백		배학철
1997. 2	채백		배학철
1999. 6	김재경		허경호
2003. 6	신태섭	노혜경, 장길만	허경호, 정숙희
2004. 6	신태섭, 박병수	장길만	정숙희
2005. 2	김성문, 신태섭	이진규	황대진
2006. 2	김성문, 신태섭	장길만, 이상기, 황미향	황대진
2006. 8	이진로, 장길만	이상기, 황미향	
2007. 2	이진로, 장길만	이상기, 안병규	황미향
2009. 2	장길만, 윤영태	안병규, 이상기	권혁근
2010. 2	윤영태, 안병규	정숙희	윤대원
2011. 2	윤영태, 안병규	정숙희	윤대원, 권혁근
2012. 2	윤영태	정숙희	윤대원
2013. 2	윤영태	정숙희, 복성경	윤대원
2014. 2	윤영태	복성경, 정수진	윤대원, 정숙희

역대 사무국 현황

1994.	이진규, 황미향	2004.	정순영, 박정희, 김청수
1995.	이진규, 정순영	2005.	정순영, 박정희, 복성경
1997.	김남원, 정순영	2007.	박정희, 복성경, 권용협
2000.	김남원, 정은주	2009.	박정희, 복성경, 허소희
2003.	정순영, 박정희	2013.	복성경, 박정희

부산민언련  
현 임원진

대 표 : 윤영태  
 부대표 : 복성경, 정수진  
 감 사 : 윤대원, 정숙희  
 고 문 : 배다지, 채 백, 이범수, 김재경  
 운영위원 : 윤영태, 복성경, 정수진, 안병규, 이진로, 최용국, 장길만, 장현수,  
 조보고파, 박지선, 박정희  
 사 무 국 : 박정희 사무국장

### 부산민언련 창립부터 20년을 함께한 회원

김남원 김성우 김재경 문정임 이진규  
장호출 장길만 채 백 황대진 황미향

\* 1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소개된 회원으로 현재까지  
부산민언련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 계신 회원입니다.

### 부산민언련 10년지기 회원

김진숙 강동민 권영란 김정훈 김종열 김종옥 김철기 남정숙 독고지은 류창섭  
문종대 박미순 박소영 박소옥 박순정 박재진 박정희 박홍원 배기연 백미화  
복성경 송태연 신금아 신병률 신은제 신태섭 안지숙 안병규 안은숙 오창호  
윤영태 이경희 이명곤 이범수 이상기 이설강 이승환 이진로 이재연 신현숙  
이행봉 이현우 이호진 이희길 임수경 임현주 장익진 전미경 정경문 정숙희  
지창준 정순영 정은주 정은혜 정재성 조항제 주은희 최상원 최은정  
노무법나라

\*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회원입니다.

### 부산민언련 회원 명단 (2014년 4월 기준)

강기재	가경옥	김진숙	강동민	강병구	강승화	강아란	강영익	강필희	강호성
공진성	곽종교	구자문	구지영	권성하	권영란	권용협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오	김대철	김동기	김동찬
김명혜	김병국	김보영	김상현	김새별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성현	김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연식	김영민	김영일	김영준	김용범	김욱	김유진	김은민
김은영	김재경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우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옥	김주만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차름	김철기(김지숙)		김태진	김태훈	김하원	김해몽	김현아	김현지	김형욱
김형진	김형천	김형철	김홍수	김홍식	남원철	남인숙	남정숙	남태수	노무법나라
노상조	노정현	노현희	노상형	독고지은	류광종	류수정	류위훈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정임	문종대	문지용	문지효	문창현	민은희	박경배	박동혁	박미순
박봉환	박상조	박소영	박소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지선	박진홍	박창호	박태수	박태순	박현옥	박홍원	박희주	배기연
배일진	배재한	배혜래	백미화	백승기	변동환	복성경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성창훈	손영호	손주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미숙
신병률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재영	안지민	안지숙	양민정	양승동	엄상준	염창현	예종일	오민영
오정우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옥서연	왕현호	왕경덕	유시호	유원경
유행현	윤나리	윤대원	윤명숙	윤성효	윤순정	윤영태	윤태연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숙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동일	이두원	이명곤	이명숙
이미미	이범수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셋별	이선화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준	이승환	이승훈	이아인	이영란	이영우	이오상	이원구
이원규	이은희	이일수	이정미	이지윤	이진규	이진로	이진로	이재연	이철재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수평	임연수
임윤희	임은정	임현신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석순	장선화	장용돈
장익진	장현수	장형철	장호출	장홍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숙희	정순영
정영근	정우윤	정유진	정은주	정은혜	정지연	정재성	정재훈	정혜영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동현	조범수	조보고파	조봉권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옥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차동엽	차진구	채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웅국	최웅수	최은정	최종숙	최지수	최진혁	최창영	최태경	최한주	최환웅
하미정	하복기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성자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은영	허지안	홍유선	홍지영	황대진	김연희	황영주	황지연		



## ‘힘주머니 후원명단’

2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특별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4월 25일 현재)

강은옥	강정숙	고지영	구영찬	구자문	권용협	김갑룡	김경림	김경화
김고은	김남원	김다혜	김덕진	김동하	김득수	김병국	김상화	김선애
김연희	김영	김영란	김정숙	김정환	김정희	김종건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차름	김해몽	김형욱	김형철	남기범	남영택	노민현	노부은
독고지은	류위훈	류창섭	문종대	문창현	민은주	문정임	박미정	박배일
박선경	박소영	박순영	박순옥	박순정	박정미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창호	박태수	박태순	박희주	백성한	복성경	성은진	손영호	송태연
신명순	신영순	신창용	신태섭	안병규	안영민	안지숙	안하원	양승동
엄혜정	오세자	왕현호	유태진	윤대원	윤명숙	윤영태	윤희옥	이경균
이광영	이민환	이범수	이병주	이상미	이상백	이선동	이성열	이승신
이승환	이영환	이우형	이원규	이정미	이준경	이진로	이현정	이현주
이현중	이호숙	이호진	이훈전	이희길	익명	임순평	장길만	장명희
전세표	정세화	정수진	정순영	정영림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해
조보고파	조소희	조신이	조한제	주정림	차동엽	채백	채송화	최동섭
최미라	최선경	최영송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재미	최종숙	최지수
추승기	하미정	하용일	한성안	한지영	허용석	허은영	현정길	황미향
황해남								

KN노동조합 국제신문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부산지부 동의대독어독문학과동문회  
 반송희망세상 부산MBC노동조합 부산경실련 부산청년회 사하품앗이  
 전교조부산지부 총북민연련 부대신문사 젊은벗 부산민중연대

청년 민연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성명서 논평모음

## 단독 성명·논평

1999. 2. 20	〈독립성 보장없는 방송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1999. 5. 11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탄압 중지하고 대학신문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1999. 7. 15	〈방송노조파업에 대한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의 입장〉
2001. 4. 26	〈국제신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를 시론 필진에서 제외하라!〉(신문모니터분과)
2003. 7. 31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지역감정의 조장을 경계한다〉
2003. 9. 27	〈한나라당은 지역의 풀뿌리 언론을 죽이는 반개혁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3. 11. 3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흔들지 말라〉
2004. 2. 27	〈한나라-열린우리당 양당 중심보도 자제하라〉
2006. 4. 27	〈지역 공공성을 위협하는 DMB 정책 시정을 촉구한다.〉
2007. 8. 29	〈방송위원회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2009. 12. 10	〈이번엔 지역 언론 길들이기?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 협박 즉각 중단하라〉
2011. 7. 19	〈'연합뉴스의 공정정보도를 촉구한다'〉(‘한진중공업 사태·희망버스’ 대한 연합 뉴스부산 보도에 대한 입장)
2011. 11. 21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 투쟁 적극 지지한다〉
2012. 10. 22	〈박근혜 후보의 역사왜곡 국민기만 행태를 규탄하며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촉구한다〉
2014. 3. 11	〈불공정보도 주역이 부산MBC 사장 웬말인가!〉
2014. 4. 4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에서 손뎌라〉

## 공동, 연대 성명 논평

1994. 6. 30	〈민방신청업체의 부산시민공청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바람직한 지역민영방송을 위한 시민공청회’ 불참에 대한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기자협회부산지부, 부산경남언론학회 공동입장)
1996. 11. 28	〈정부는 방송법 개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 공동)
1999. 2. 20	〈독립성 보장없는 방송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방개위 방송개혁안에 대한 입장)
2003. 8. 21	〈경남민방 설립에 관한 의견서〉(경남민언련 공동 의견서)
2004. 2. 29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갈등'으로 왜곡하지말라〉(시민단체 '낙선운동' 갈등 보도에 대한 부산민언련 논평)
2004. 5. 31	〈올바른 보궐선거보도를 기대한다〉((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시민

	운동단체연대,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논평)
2004. 8. 30	〈부산일보 스스로 '정수장학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까?〉(‘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일보 광고게재 거부에 대한 항의서한)
2005. 2. 4	〈정수장학회의 사회적 환원이 관건이다〉 (박근혜 대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에 따른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수장학회공대위) 입장)
2005. 4. 28	〈아직도 ‘공짜 해외 여행’인가?〉 (부산시 해외 순방 기자단 동행 취재에 대한 논평)
2005. 5. 24	〈방송위원회는 추진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의 정책의결권을 인정하라〉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의견서)
2005. 7. 28	〈강탈재산 ‘정수장학회’를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정수재단 이사장 및 이사진 총사회를 촉구하는 시민공대위 기자회견)
2005. 9. 22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006. 5. 29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전국민연련 공동)
2007. 4. 24	〈균발위는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 청탁취재’ 사건에 대한 전국 민연련 논평)
2007. 5. 3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전국민연련 공동)
2007. 5. 30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을 즉각 반환하라”〉 (이하 정수장학회공대위 논평)
2007. 7. 2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 절실!〉(지역민연련 공동)
2007. 10. 11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참인가?〉 (지역민연련 공동)
2008. 5. 20	〈이명박 정부는 KBS 장악음모를 당장 중단하라!〉(부산시민운동연대 공동)
2008. 6. 23	〈동의대학교의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을 규탄한다〉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공동)
2008. 7. 3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중단하라!〉(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와 공동)
2008. 7. 19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언론장악저지 및 신태섭해임무효 공대위, 이하 신태섭공대위)
2008. 7. 28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전국 공동)
2008. 9. 25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신태섭 공대위)
2008. 10. 9	〈YTN 노조 힘내세요, 지역에서도 당신을 지지합니다.〉(지역민연련 공동)
2008. 11. 10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지역민연련 공동)
2008. 11. 20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공동)

2008. 12. 9	〈자치단체와 언론사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지역민언련 공동)
2008. 12. 18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 삭감 통과에 대한 지역민언련 성명서)
2008. 12. 23	〈언론공공성· 지역언론 다 죽이는 '언론악법' 철폐하라!〉(신태섭 공대위)
2009. 1. 16	〈상식과 원칙을 지킨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신태섭 공대위)
2009. 1. 20	〈KBS 이병순 사장은 보복징계 즉각 철폐하라!〉(언론장악저지및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이하 언론공공성부산연대)
2009. 3. 27	〈YTN 노종면 위원장과 MBC 이춘근 PD를 석방하고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언론공공성부산연대)
2009. 5. 6	〈지역언론 고사민주주의 말살하는 언론악법 폐기하라!〉(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부산공정회에 대한 언론공공성부산연대 공동 성명)
2009. 6. 26	〈언론악법 강행위헌 단독국회,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언론공공성부산연대)
2009. 9. 3	〈부산시는 '민주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그럴게도 부끄러운가?〉(민주공원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공동 논평)
2009. 12. 24	〈문경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언론공공성부산연대 공동)
2010. 6. 3	〈조중동과 KBS의 '참패'다〉(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방선거보도민언련모니터단 공동 논평)
2010. 10. 11	〈'관변단체' 전락한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참칭말라!〉(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공동)
2010. 11. 23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언론공공성부산연대)
2010. 12. 31	〈무능하고 천박한 정권이 '괴물' 만들었다〉(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를 규탄하는 전국 민언련 논평)
2011. 8. 9	〈방통위, 끝내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가?〉(방통위, 진주-창원 MBC 통합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2012. 1. 3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랩법 즉각 제정하라!〉(지역민언련 공동)
2012. 1. 5	〈방송사들은 미디어랩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전국민언련 공동)
2012. 2. 27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논의, 이제부터다〉(정수재단반환부산시민연대)
2013. 4. 19	〈부산MBC '낙하산 사장 안 된다' 지역MBC 자율성·공정성 지켜져야〉(언론공공성부산연대)
2013. 5. 20	〈허위사실 날조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훼손시킨 〈TV조선〉·〈채널A〉의 종편채널 허가를 취소하라!〉(전국민언련 공동)
2013. 7. 18	〈한겨레, 부산일보 기자에 대한 재갈물리기 소송 즉각 철폐하라!〉(전국민언련 공동)
2013. 12. 12	〈명분없는 수신료 인상, 국민이 반대한다.〉(언론공공성부산연대)

## 독립성 보장없는 방송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 방개위 방송개혁안에 대한 입장 —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가 발표한 방송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심심한 우려를 표현 하면서 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송개혁의 핵심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방개위도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방송 독립성의 보장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방개위가 발표한 안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앞으로 방송 정책의 중추 기관이 될 방송위원회가 정부 여당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라질 방송법에서 방송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 제청, 과반수 이상의 선임, 예산과 결산 승인 등의 권한이 모두 방송위원회의 몫이다. 따라서 그 임원진들을 엄정하게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을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핵심과제이다.

그럼에도 방개위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비율 1대 1방식을 비롯해 집권여당이 방송위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3가지 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방송독립의 또 다른 축이라 할 편성권 보장도 '방송사업자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는 새로운 '관영방송'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방개위는 당초 표방한 문화방송의 공영성 강화라는 원칙도 허물어 버렸다. 재원은 광고로 충당하면서 소유는 공영이라는 문화방송의 파행적 구조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이번 방송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방개위는 문화방송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덩치를 불러주는 것으로 '공영적 민영방송'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화방송은 입으로는 '공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광고 확대를 노리는 시청률 경쟁의 노예가 되는 모순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영성 강화가 구체화되지도 않은 가운데 시청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는 400만 부산 시청자를 대신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좋은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으면서 시청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방침에 대해 시청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방개위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방개위 결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2월 20일  
부산민주연론운동협의회

##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탄압 중지하고 대학신문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새정부 출범이후 우리 사회는 과거에는 해결될 수 없을 듯한 문제도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자유와 상징 대학신문은 오히려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과거 우리사회 유일의 언론자유를 실천하는 매체로 역할해 오던 대학신문이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 언론탄압상황이 심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사회 민주화의 척도라는 대학에서 이해못할 반민주적인 탄압과 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대학신문이 대학구성원 전체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의견인 것 같다. 사회정치적인 내용 위주로 편집되고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학신문의 편집자율권을 없애고 대학홍보지화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현재 전국에서 편집자율권 보장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학은 인제대, 서울시립대, 동아대, 효성카톨릭대, 계명대, 순천향대, 세종대, 건국대 등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인제대와 동아대가 길게는 1년 넘게 대학당국과 마찰하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 98년 3월 개강호 발행 중 기사내용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 공동광고 게재문제로 중단된 신문이 현재까지 기자해임, 신문사 폐쇄, 무기정학 등의 사태로 발전하여 학교측은 신방과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신문사를 운영 중이다.

동아대는 올해 3월, 85년 개정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없는 기자 학과성적을 밑미로 기사를 해임했고 기자들은 '동아대학보사 언론자율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학보사 규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 분회)는 현재 부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신문의 편집자율권 분쟁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학내부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비록 대학신문은 학생기자들을 증추로 발행되는 신문이긴 하지만 분명히 독립된 언론 매체이다. 대학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교수임용이나 사학재단 비리 등에서 보여지듯이 부정과 비리가 잔존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신문조차 언론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그 존립근거를 스스로 없애고 취업학교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대학내의 언론 자유, 특히 대학신문의 편집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개혁의 핵심이다.

둘째, 민주적이고 사회변화에 적합한 신문사칙을 마련하라!

동아대학보의 경우 군사독재시절에 개정하고 한번도 적용한 적 없는 비민주적인 사칙을 적용해 기사를 해임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학과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기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는 성적위주 교육에서 개인자질개발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대학에서 사문화된 성적조항을 들어 기사를 해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학 당국은 이제 시대상황에 맞춰 대학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칙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신문의 원고 검열 조항까지 남아있는 사칙을 이제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언론탄압에 다름 아니다.

셋째, 교육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대학언론활동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하에서 자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대학개혁을 위해서라도 대학내부의 언론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내부 비판이나 사회비판이 자유로운 대학일수록 사회적 평판이 좋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도 대학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대학내부 비판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대학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회는 인제대와 동아대의 대학신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행되기를 기원한다. 대학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이다. 대학신문의 존재가치는 대학 홍보에 있는 것이 아닌 언론자유에 있음을 학교당국은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본회는 사태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언론 자유와 함께 할 것이다.

1999년 5월 11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 방송노조파업에 대한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의 입장

먼저 국민의 방송, 정치권력 및 자본에서 독립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방송사 노조원의 파업에 격려를 보낸다.

최근 본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방송독립과 제반 언론관련 법률제정을 정부에 즐기치게 요구해왔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부처가 방송 및 신문을 직접 관장하여 얻은 결과는 끝없는 공정성 논쟁과 불신 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해 있으나 마나한 방송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 규제기구로 승격시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은 이제 대세이며 온국민의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방송법개정의 목적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방송이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횡포를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개정의 핵심인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방송법의 취지를 살리느냐 못살리느냐가 좌우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은 방송위선임에서 대통령 및 여당에 권한이 편중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경영진에게 방송편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권은 지금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 초안을 들고 미흡하다느니 하면서 시간끌기에만 전념하고 있고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방송현업인들의 신속한 재정과 개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본회 및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은 어떤 방송노조의 파업은 당리당략에만 얽혀 언론현업인 및 언론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요구를 듣지 않은 정치권의 무책임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방송법 개정을 위해 애쓰는 방송사 노조 동지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정부는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논의의 장으로 빨리 나오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15일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위원회는 추진위 합의를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의 정책결권을 인정하라!

지난 11일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은 지금까지 합리적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해온 센터운영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부분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운영규정 중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제3조 3항 두 번째 '운영정책안의 심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정책심의권만 갖고 정책결권은 방송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했다. 이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합의한 '전문성의 최대화, 자율성의 최대화'라는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뒤엎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각 지역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최대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운영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운영위원회가 '정책 심의 및 결권'을 갖춘 명실상부한 독립적 의결구조로서 위상을 가진 운영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운영규정은 추진위가 마련한 운영규정안에서 훨씬 후퇴하여 운영위원회가 정책심의권만 갖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소신 있는 운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다. 의결권이 없는 운영위원회 구조 아래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만큼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추진위의 합의를 존중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라!

2005년 5월 24일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번엔 지역 언론 길들이기?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가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한데 모아놓고 세종시, 4대강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방보도가 선정적, 감정적”이라며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겠냐”며 책임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 언론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선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역 언론의 보도에 불만이 많았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넘어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큰 틀 속에서 준비된 사업으로,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이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결국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 공멸을 우려한 지역 민심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민심에는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한 ‘국익을 위한 언론책임’을 언급한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보도는 하지 마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 국장을 불러 모아놓고 공개

적인 자리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에 앞서 지역신문들에게는 정부광고라는 선물도 미리 준비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아침 전국 47곳의 지방 일간지 1면 하단에는 세종시 관련 정부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이날 광고는 충청권, 영·호남권 등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된 지역 민심 이반을 우려한 맞춤형 광고로 제작됐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정부 광고로 언론을 달래고, 한편에서는 협박을 통해 지역 언론을 길들이려는 이 같은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지역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지역 언론 길들이기가 지속될 경우 지역의 언론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언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국민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년 12월 1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이하 부산일보 노조)가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의원에게 정수재단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나섰다. 이는 정수재단이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무엇보다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부산일보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산일보 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밝힌다.

정수재단은 이미 지난 2006년 국정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이었던 김지태 씨로부터 강탈한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부산일보 주식 100%, MBC 주식 30%, 경향신문 사옥 땅 700여 평을 소유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2005년까지 정수재단 이사장을 맡아왔고, 그 후부터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 씨를 이사장에 앉혀 여전히 소유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일보 노조가 정수재단과 부산일보를 잇는 고리인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 사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박근혜 의원과 정수재단은 이를 외면해 왔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수재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노조에 정계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 최필립 이사장은 부산일보 보도가 박 의원에게 소홀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일보 노조는 정수재단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박근혜 의원이 명목상의 이사장과 사장을 내세워 부산일보를 간접통치하고자 하는 시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자 언론인다운 용기이다. 정수재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도 언론사상 최초의 파업을 벌여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쟁취해낸 지역의 대표 신문 부산일보가 다시 한 번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쟁취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 생각하며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지역민과 독자들도 부산일보가 부산의 대표 언론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내는 민주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정수재단이 허울뿐인 공익법인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에 환원되길 바라며 박근혜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공정보도 주역이 부산MBC 사장 웬말인가! 문철호 전 보도국장의 부산MBC 사장 내정 철회하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11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부산MBC 사장에 문철호 전 MBC 보도국장을 내정했다. 12일 주주총회를 거치면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지역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안광한 사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MBC를 '장악' 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철호 전 보도국장이 누구인가? 문철호 보도국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이 진행되던 2012년 3월 19일 이진숙 MBC 당시 홍보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제명된 인물이다.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보도국장을 맡으며 MBC '불공정보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는 부산MBC 사장이 될 수 없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사회적 의미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다면, 부산MBC는 지역 방송으로서 자율성을 잃고 서울MBC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할 것이다. 또 부산MBC의 공정성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MBC는 지난 김재철 사장, 김수병 부산MBC 사장 체제 하에서 이미 공정보도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따라서 신임 사장은 공정방송 시스템을 복원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 방송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MBC 전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낙하산 인사라니!! 더구나 부산MBC 노조는 물론이고 구성원도 반대하는 낙하산 인사는 MBC를 또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부산 시청자를 모욕하는 문철호 전 보도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다시 선임하라.

##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에서 손떼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무분별한 상업 개발로 망치려는 계획에 일부 지역 언론이 동참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전문지 <건설경제> 4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남부선 옛 철길 부지인 해운대역사 주변과 4.8Km 규모의 미포~송정 구간에 대한 예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한 결과, 해운대역사 개발 사업에는 레일&스토리(KNN)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했고 미포~송정 구간 사업에는 모두 6개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 사업자 중에 지역 언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역사 개발사업과 미포~송정 구간 사업에 모두 제안서를 신청한 레일&스토리(KNN) 컨소시엄에 부산방송KNN, 부산일보가 참여했고, 미포~송정 구간에 사업을 제안한 하나투어 컨소시엄에는 부산MBC가 참여했다.

특히 KNN과 부산일보가 참여한 레일&스토리(KNN) 컨소시엄의 경우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와 철도공단 관계사인 코레일테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무분별한 민간 상업개발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개발 주체와 함께 선수로 나선 격이니, 부산 관 '권언유착'이라는 의혹마저 든다. 이들 언론사가 동해남부선 옛 철길 개발 과정에 대해 과연 사회의 공기로써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의 상업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장 후보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부산시장 여야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동해남부선 옛 철길 사업의 줄속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부산시장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특혜 개발 논란까지 일고 있어 KBS부산, 국제신문 등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경향신문에서도 보

도하여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지역민과 함께 하며 지역 사회 문제를 감시하고 공론화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 상업개발에서 손떼라! 그리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분별한 상업개발 감시에 적극 나서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철길을 빼앗고 이익에만 몰두한 개발 세력으로 몰려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2014. 4. 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민주언론을 만드는 데 앞장섬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 언론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 제시
2.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 - 언론학교, 모니터 교실 등
3. 언론감시 사업 - 신문, 방송 모니터 활동 등
4. 출판사업 - 모니터보고서, 기관지 및 언론관련 문헌 발간사업
5. 연대사업 - 언론유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조 및 연대
6. 조사연구사업 - 언론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과 세미나 등 개최
7. 퍼블릭액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8. 인터넷 저널리즘 지원 및 참여활동
9. 지역언론-대학언론 지원 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받아보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② 기타 회원의 활동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①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부대표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정책위원장

제10조 (임원의 선출) 대표를 포함한 임원 선출의 방법 및 절차는 운영위에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대표 및 부대표, 감사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정당에 가입한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제 9조에 열거한 자로 한다.

제12조 (대표)

- ① 대표는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대표는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 ④ 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제13조 (부대표) 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운영위에서 선임된 부대표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가 선임하며 3명까지 둘 수 있다.

제14조 (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③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각급 체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개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3. 예결산 심의 및 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주요사항

## 제5장 각종기구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기능

-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재정보고 및 승인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 2)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3)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쇄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의결
- 5) 기타 중요사항 결정

③ 소 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

- ① 본회는 상설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본회 제반사업을 집행 처리한다.
- ③ 사무국장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사무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제20조 (고문) 운영위는 본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 (정책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는 본회의 활동을 자문하는 정책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이때 정책 위원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위촉한다.
- ② 위촉된 정책위원 중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22조 (위원회)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시 대표가 임명한다.

제23조 (사업단) 본회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재 정

제25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회비, 재정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26조 (관리) 재정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아래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제27조 (예결산) 본회의 예결산은 감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보칙

제29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

### 제30조

(기부금 실적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의결과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4년 4월 30일 제정

1995년 4월 29일 개정

2010년 2월 18일 개정

2011년 2월 18일 개정

참언론실천시민모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의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동문회



더불어사는

###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노동자협동조합은  
가정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웃과 협동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동자·서민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부산노동자협동조합이  
부산민연련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workcoop.org](http://www.workcoop.org)

부산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3 노동복지회관 1층  
051) 637-7560~2

축하광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지부

부산일보지회

국제신문지회

KBS부산지회

부산MBC지회

KNN지회

연합뉴스부산지회

부산CBS지회

불교방송지회

중앙지연합지회

“뉴스가 왜 저래?”  
“왜 우리 얘기는 없는 거야?”  
“선정성 장난 아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이 문제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뭉친 시민 모임입니다.

미디어가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시민 모임입니다. 언론개혁과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거울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언련)'입니다.

#### 1994년 4월 30일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2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언련은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습니다.

힘주머니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을 놓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 주세요.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함께 해 주세요.

#### 후원계좌

부산은행 021-01-054360-1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과 함께한 부산민언련 20년 활동백서

# 청년 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

**역은이**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 [bssiminet.or.kr](http://bssimi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mailto:buun1@hanmail.net)

**전화** 051-802-0916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08번길 12(6층)

**퍼낸곳** | 빛누리기획

**이메일** | [happyad@daum.net](mailto:happyad@daum.net)

**전화** | 051-254-2177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4(5층)

ISBN:979-11-85266-05-3-03070